

계간

# 북한 지역연구

여름  
2023

창간호

이번호 주제 : 신의주(新義州)

관문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성과 공간구조

신의주(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신의주의 이모저모

신의주의 사람 사는 이야기

언론에 비친 신의주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2023 여름 창간호

이번호 주제 : 신의주(新義州)



**02 권두언**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북한지역연구 개발지의 발간의 의의와 연구방향성



**06** 관문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성과 공간구조

**17** 예동근 (부경대 교수)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의 협력에 대한 단상



**23** 김성배 (송실대 명예교수)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29** 하충엽 (송실대 교수)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 Cover Story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조중우의교 (왼쪽)와 압록강단교(오른쪽). 조중우의교는 북중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교는 6.25 전쟁시기 중앙부가 파괴되어 현재는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다.

◆계간 북한지역연구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등록번호 : 종량, 바00020 ◆발행년월일 : 2023년 7월 20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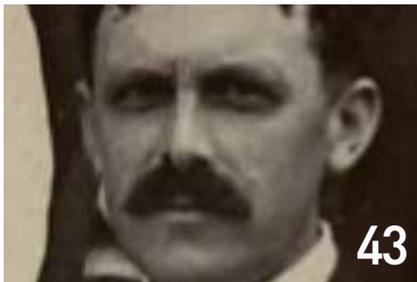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35**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40**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43** 신의주(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61** 신의주의 이모저모

**65** 신의주의 사람 사는 이야기



**74** 언론에 비친 신의주

# 북한지역연구 개발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방향성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지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를 부르셨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모세는 열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그 땅을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안으로 들여보내 성내의 상황을 조사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정탐꾼들의 조사내역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종족, 풍습, 토양, 거주 지역, 세계관 등이 세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은 조사결과를 보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사결과는 동일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으로 북한의 각 지역을 연구할 것입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 땅에는 약 19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신자들의 수효도 한반도 교인들의 약 60퍼센트 이상이 있었습니다. 공산화 된 이후에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말살정책이 3대까지 대를 이어오며 적어도 북한 땅에는 공산당 정부가 세워놓은 위장 교회조직과 소수의 신자 이외에는 교회와 신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이었지만 교회가 지상에서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카타콤의 역사이자, 지하교회의 존재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제국 치하 300년의 역사 속에서 카타콤으로 존재하던 교회는 지상교회가 되었고, 동로마에서는 찬란한 비잔틴교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서 1907년 공산화 되어서 지상교회가 무신

론박물관이 되었고, 지하로 숨어들어 카타콤의 형태로 생존하였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1991년 무너지고, 러시아의 교회는 지상으로 나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를 전부 무너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완성을 외쳤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말살하는 것은 실패하고, 중국 전역에 약 8천 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듯이 고난의 역사이고, 카타콤의 역사이지만 교회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말살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교회이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 나가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분야의 연구를 월간북한소식을 통해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북한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북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단일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각 도에 따른 지리적인 특징과 삶의 양상과 모습이 특징 있게 나타납니다. 언어도 동일 언어이지만 방언이 있고, 기후와 지리적인 특징을 따라 음식도 풍습도 주거양식도 다릅니다. 공산당의 독재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획일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충성된 계층이 모여 있는 지역도 있지만 불평불만이 있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도 있습니다. 북한의 각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각 지역에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공산치하에서의 핍박의 양상도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산화 된 이후에 지금까지 각 지역의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었을까요? 교회의 역사가 카타콤의 역사이듯이 지하교회의 소식은 없는가요? 저희들은 북한선교현장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북한 카타콤의 교회 그루터기 신자들을 섬겨왔던 베테랑 선교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각 지역을 연구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되도록 이미 지상에 발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교회와 교인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북한 각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을 과거와 현재까지 연결시켜서 조사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민감한 선교소식과 북한교인들의 모습은 철저히 안전을 위한 보안조치를 할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지하에서 카타콤의 교회로 생존하고 있는 북한교회를 회복하며, 섬기는 것은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들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지역연구 개발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개발지가 북한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구방법은 각 지역을 다루되 주요 도시와 군과 리 등을 함께 묶어서 조사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공간구조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성찰할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중앙정책과 지방정책의 시행의 특색이 무엇이고, 각 거

주민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과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확산이 되었으며 공산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문헌자료 뿐 아니라 북한선교현장에서 저희의 사역자들이 직접 확인한 소식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눌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침례교회는 전신인 동아기독교의 4대 감목이었던 김영관 목사가 북한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사모님은 함경북도 종성지역에서 추방되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오늘날의 선봉지역인 산골짜기에서 1988년 소천하기까지 염소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빈한하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평생 지켜온 신앙의 지조와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적인 사건과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공개된 교회지도자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지하에 숨어있어서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귀한 교회지도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지하에 숨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교인들을 돌보다가 소천한 하나님의 종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 땅에서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해방전에 평양신학교에서 발간한 신학학술지로서 “신학지남” 20여 권을 인편을 통해 전달 받아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지도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공산 치하에서도 살아남아서 북한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신의주와 주변 지역을 연구할 것입니다. 평북의 신의주는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중국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역으로서 중국을 통해 들어온 복음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은 지역입니다. 신의주에는 장로교회가 제일부터 시작해서 제육교회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결교회 뿐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 이성봉목사가 10년여 목회하던 장소이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 되는데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고, 반대한 곳이 신의주 지역입니다. 북한교회 순교자의 피가 북한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1990년도 중엽에 단동의 칠도구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칠도구 교회는 원래 신의주 제일장로교회가 안동 즉 지금의 단동 중국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교인들을 위해 설립한 교회로서 의산노회 소속이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전도사로 시무하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칠도구 교회는 홍위병에 의해 교회건물이 파괴되고, 교인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신의주 제일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중국의 안동지역으로 와서 칠도구

교회를 장로로서 섬겼던 정 장로님이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서 교회 부지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써 살아남았고, 칠도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 장로님의 아들이 당시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나성 제일교회를 시무하고 있던 정석산 목사이었고, 사위는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교수로서 김득룡 목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있는 북한 출신의 실향민교회지도자들로 하여금 단동의 칠도구 교회 소식을 듣게 하시고, 칠도구 교회를 돕는 중에 해방촌교회가 일년 정도 안수 집사님을 보내어서 칠도구 교회당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동의 칠도구 교회는 원래 이름이 안동 제일장로교회인데 중국정부의 삼자교회정책에 의해서 지역 이름을 붙인 칠도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후 칠도구 교회는 목회자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지하에 숨어있던 교인들에게 이 소식이 바로 전달이 되었고, 북한교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격려와 위로와 교회재건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칠도구 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선교를 한다고 칠도구 교회에 접근하는 것은 현지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이며, 또한 본인 자신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안기관들은 각기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칠도구 교회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함정을 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의 울무와 함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지역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았듯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북한교회로 하여금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각 지역연구는 철저하게 복음적 관점으로 연구될 것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기에 매달 발간할 수는 없고 최소한 분기별로 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병행선교기구로서 한국의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와 북한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관문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성과 공간구조

## 1. 머리말

신의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주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다.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용산-의주 간 철도를 부설하였다. 당시 종착역이 위치한 의주 서쪽 외곽이 국경취락지로 개발되며 새로운 의주라는 뜻의 '신의주(新義州)'라 하여 오늘의 지명으로 굳혀졌다. 이렇듯 전쟁과 철도가 만든 신의주는 발전을 거듭하여 1921년 평안도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로 갈라질 당시 평안북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임진왜란 시 선조의 몽진,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출발지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의주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대륙과 접한 북녘의 관문이었다. 해방과 분단을 거치며 신의주에서는 기계, 금속공업과 더불어 섬유 중심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북한의 서북부지역 주요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또한 신의주는 인구가 밀집된 변경 무역도시로서 철도, 해운, 수운, 도로가 모두 연결된 도시이자 생태환경 및 인문 역사에 기반을 둔 관광 자원과 압록강 인근 비옥한 평야 지대를 포함하여 농업적 기반을 갖춘 평안북도의 대표도시이다.

북한의 도시별 인구를 보면 평양이 315만, 청진이 65만, 함흥이 54만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그 뒤를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개성 등이 따른다. 신의주는 2022년 12월 기준 34만 9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지역 대도시로서<sup>1)</sup> 북한의 10대 도시를 말할 때 신의주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학자에 따라 평양, 청진, 함흥의 3개 도시를 특대도시로 따로 구분하고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개성, 사리원, 순천, 평성, 해주, 강계, 안주, 덕천, 김

---

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ZGA281&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1&conn\\_path=MT\\_BUKHAN&path=%252Fbukhan%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ZGA281&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1&conn_path=MT_BUKHAN&path=%252Fbukhan%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 06, 13)

책의 14개 도시를 대도시로 구분하기도 한다.<sup>2)</sup> 신의주는 교통, 무역, 공업, 관광 등의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자 중국과 인접한 대도시로서 북한 대도시의 특성과 변경 도시의 특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도시이다.

## 2. 신의주의 도시구조와 최근의 변화

### 1. 신의주의 행정구역

신의주의 행정구역은 2003년 기준 49동 및 9리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주는 구시가지인 신의주 도심지역과 이후에 발달한 남신의주, 낙원 구역의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의주 도심에는 주민 총수의 65%(도시 주민의 76.9%)가 살고 있으며,



신의주 지역구분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12.28, 검색일: 2023.06.15.)

그 이외에 남신의주 지역은 11.4%, 락원 지역은 8.2%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신의주지역은 도시의 중심지로 당-정부기관, 주요 기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신의주 도심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신의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 시설, 당-정권기관,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직, 화학섬유공장 등 큰 공장이 신의주 도심에 밀집해 있다.<sup>3)</sup>

신의주시의 동북(연하동)-서남(류초리)간의 길이는 20km이고, 북서(방직동)-남동(삼교리)간의 길이는 13km이다. 면적은 약 190km<sup>2</sup>로서, 이는 평안북도 전체면적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에 있어서는 전국 28개 시 중 송림, 사리원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시이다. 신의주의 철도는 평의선(경의선)과 이 선에서 분리된 백마선, 덕현선이 통과하고 있다. 평의선은 1905년 개통되어 1964년 전기화되었는데 신의주에 속한 주요 역으로는 신의주청년역, 남

2) 조현숙, “중소도시의 계획적 형성은 도시에도 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형성방식,” 『경제연구』 제 22권 1호, (2004), p.37.

3) 정은이,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통해서 본 신의주시의 공간적 특징: 무역, 산업,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19권 3호, (2017), p. 27.



신의주의 수로(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12.28., 검색일: 2023.06.15.)

신의주역, 석하역, 락원역 등이 있다. 특히 신의주청년역은 평의선의 시단역이며 “평양-모스크바”, “평양-베이징” 국제열차의 통과 지점이다. 주요 도로는 평의선과 병행하여 신의주-정주-평양을 연결하는 ‘1번 국도’와 신의주-혜산-온성을 잇

는 ‘10번 도로’, 신의주-우암, 신의주-피현 도로 등을 통해 인접 시·군과 연결되어 있다. 신의주에서 남신의주까지는 4km, 락원 일동까지는 9.5km, 천마까지는 8.7km이다. 신의주항은 압록강 하구로부터 65km 위에 있는 강항으로 1910년 개항되었으며 부두 시설은 총연장 약 600m에 이른다. 10월부터 2월까지의 결빙으로 폐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록강 연안의 신의주항을 통하여 신의주-하단-상단, 신의주-류초도-황금평-비단섬 간에 수상통로가 개설되어 있다.<sup>4)</sup>

## 2. 남신의주 개발

지대가 낮은 신의주 구도심은 여름마다 홍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1958년 압록강 지역의 대홍수와 1980년대 여러 차례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이는 남신의주 개발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최근 십수 년간 남신의주 개발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신압록강대교이다. 2014년 완공된 신압록강대교는 신의주와 단동의 구도심을 연결하는 조-중우의교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20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다. 과거 2002년 북한이 추진한 신의주행정 특구는 남신의주 지역을 제외한 북신의주 지역과 위화도, 유초도, 의주-철산-염주군 일부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중국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이었고 결국 중국에 의해 좌초되었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의 주도로 2014년 완공되었다. 북한은 2019년까지도 다리로부터 타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후

4) 앞의 글, pp. 29-31.

2019년 길이 4.3km, 왕복 4차선의 연결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2022년 하반기에 도로가 완공된 것으로 관찰이 된다. 이는 신의주의 도시공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오른쪽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압록강대교는 신의주를 거치지 않고 남신의주로 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2018년 11월 김정은의 신의주 방문 시 있었던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 지도가 큰 주목을 받는

다. 당시 노동신문은 “신의주시 중심 광장에 정중히 모여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축으로 남신의주지구까지 도시 중심축을 중심 깊게 구성하고 그 주변에 고층 살림집들과 도급, 시급 공공건물들을 입체감이 나게 배치하며 기본도시 중심축과 도시 기본도로, 압록강 강안을 따라 고층, 초고층 주택구역들을 조형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배치하면서 주택구역 안에 공원들도 많이 꾸려 신의주시를 공원 속의 도시로 건설한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목을 끈 것은 김정은의 앞에 있던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 모형이었다. 현재 신의주와 남신의주 사이에는 대부분 논밭인데 당시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속 김정은 앞에 있는 모형에는 신의주와 남신의주 사이에 고층 건물들이 밀집된 형태를 보였다.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신압록강대교의 연결도로 주변의 공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신압록강대교 연결도로의 건설 시기에 도로 주변 농지에 물류창고로 추정되는 신축공사가 있었고, 연결도로와 인접한 남신의주역 근처에는 새로운 공장들이 대거 건축되거나 확장되었다. 김정은이 신의주시를 현지 지도 할 때마다 남신의주의 공장들을 방문한 것도 남신의주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이다.<sup>5)</sup>



2018년 11월 15일 김정은 신의주 방문시 신의주 개발 모형도 앞에 있는 김정은 (참고: 노동신문, 2018. 11. 16)

### 3. 국경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성과 신의주 특구

#### 1. 단동(丹東)-신의주 네트워크

1911년 경의선이 만주 철도의 안봉선과 연결되며 단동-신의주의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1919년 통계를 보면 신의주의 조선인:일본인:중국인의 비율이 대략 43:33:24일 정도로 신의주는 한국과 중국이 혼재한 도시였으며 해방 직전 1943년에는 중국인 방문 행사 등을 제외한 정주 화교인구만 12,000명에 이르게 된다.

5) 황진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와 북중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3-13. (2023), pp. 3-6.

해방 이후 중국, 북한 건국 이후에도 두 지역은 연접한 도시로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어간다. “1950년 미국에서 조선 침략전쟁을 발동하자 조선 거민들은 임시로 관덴현 등 지구에 소산하였다. 관덴현 당정기관은 접대소를 설치해 조선 난민을 접대하고 안치하였다...”, “1960년 8월 황금평과 류초도 45,893명이 수해를 입어 가족, 생활 물품을 갖고 안동 량터우 인민공사에 도착해서 정부와 군중의 안위를 받았다. 일주일 뒤 조선 수해 군중이 돌아갔다”<sup>6)</sup> 위의 중국 언론의 보도는 당시 단동과 신의주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1964년 이래로 북한과 중국에 오가는 주민들은 비자 없이도 “국경통행증”을 통하여 왕래를 할 수 있다. 일반 국경통행증과 별개로 달리 국경 지역 주민에 발행되는 “주민 국경통행증”은 유효기간이 1개월이며 상대 국경 지역에 가까운 친척이 있거나 ‘초청통지서’를 보유한 데 근거해 발급된다. 1998년 “자동차 국경통행출입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역시 양 국경도시 주민의 왕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양국 간의 출입경 검사소(커우안口岸)가 폐쇄된 시기에도 1967년 평안북도 안전부의 건의로 단동-신의주 간에 한해서는 친척 방문이 유지되었다.<sup>7)</sup>

단동 육로(철로)커우안(丹东陆路(铁路)口岸)은 1911년 일본이 안봉선(303.7km)과 경의선을 연결하는 지점에 만들어졌다. 1966년 문화대혁명 전후 폐쇄되었다가 1981년 재개통되었다. 평양까지는 220km, 서울까지는 420km 거리이며, 신의주-평양 간 철도는 북한에서 설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베이징-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열차가 운행된다. 주 4회 운행되다가 2014년부터 매일 1회 운행되기 시작해 매일 오전 10시, 단동역에서 출발해 신의주에 정착해 2시간여 동안 입국,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오후 4시 반에 평양에 도착한다.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도 오후 4시 반에 단동에 도착한다. 2015년부터는 선양에서 출발하는 관광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월 4~5차례 운행되나 이 경우에도 단동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2015년 기준 화물 수출입량은 17.6만 톤이며, 출·입경 횟수는 13.6만여 회다.

단동-신의주는 공식적인 교류 이외에 밀무역을 통한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과거 압록강 하구의 안민(安民)에서 시작하여 점점 상류까지 확대되어, 월량도에서 활발하던 밀무역이 관톈(寬甸)으로까지 확장되어 진행되었다. 라면과 식량,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과자까지, 안 건너가는 게 없으며 한 번 보트에 2.5톤 정도 실리는데, 북한 내부의 시장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압록강 하류나 강과 바다가 만나는

6) 이경수, “북중관계와 로컬의 정치적 동학, 단동-신의주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정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59), p. 90.

7) 앞의 글, p. 95.

곳에서는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비공식적으로 성행한다. 수십 년 동안 양국이 압록강을 공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수상 무역은 범죄로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통로로 자리 잡았다. 국경을 접하는 도시는 두만강 상류 훈춘부터 압록강 하류 단동까지 십수 개 존재하지만 대규모 물류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은 단동이 유일해, 훈춘과 연지 등 다른 접경 도시에서도 단동을 찾아 무역 등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단동을 면한 압록강 하류와 황해와 달리 두만강 하류와 동해는 북중러 3국의 상이한 규정이 작용하고 섬의 부재, 수심과 해로 등의 문제로 대규모 밀수에는 제약이 따른다.<sup>8)</sup>

## 2. 신의주 특구

단동-신의주를 연결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람과 상품의 흐름은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없는 자산이다. 북한과의 무역은 신의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단동-신의주 연결의 확대는 곧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개별 행위자는 단동-신의주라는 장소의 연결에 의존하게 된다.

단동시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하지만 장소 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단동시 관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시급 단위의 간부 승진은 한 급 위인 라오닝성 차원에서 결정되며 경제 성과가 승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다. 라오닝성에서 단동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며, 외자 유치와 무역 등 대부분의 경제 영역에서 북한의 존재만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자원으로 존재한다.

단동시 정부와 중국의 개별 무역회사가 상이한 이유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면서 '의존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콕스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대체되지 않는 핵심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 의존하는 일정하게 로컬화된 사회관계의 존재가 '의존의 공간'을 규정한다.”<sup>9)</sup> 2002년 9월 12일 북한은 신의주 행정 특구에 대한 건설구상을 발표하였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의주 도심지역과 위화도, 유초도, 의주-철산-염주군 강가 일부를 포함하여 총면적 132km<sup>2</sup>의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지정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과 네덜란드 국적 화교인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이 신의주 특구에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9월 24일 양빈은 신의주 특별

8) 앞의 글, pp. 100-104.

9) 앞의 글, pp. 111-113.



2002년 이후 신의주 특구와 관련하여 북한의 발표에 등장하는 지역들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날짜: 2022.12.28., 검색일: 2023.06.15.)

행정구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신의주를 자체의 입법, 사업, 행정권을 가진 홍콩식 자치구 형태의 특별행정구로 개발하여, 홍콩에 연접한 광둥성의 심천 특구 같은 대외 개방을 위한 창구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의 중

심지로 성장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계획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의주 개발은 한순간에 무효화 되었다. 2011년에는 북한이 중국과 더불어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단동-신의주 두 도시 간의 연계 특성을 활용하여 황금평에 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4년 북한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는 최신 정보기술(IT) 산업구, 생산 산업구, 무역 및 금융구역, 물류구역, 공공서비스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를 건설하여 신의주를 국제도시로 개발하여, 약 38km<sup>2</sup>의 부지에 3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북한의 단독계획이 아닌 중국과의 소통 속에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보인다. 2011년 진행된 황금평-위화도 개발은 2009년 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요녕연해경제벨트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된 단동지역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2010년대 초부터 ‘단동-신의주 간의 구역 일체화’라 하여 두 도시 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sup>10)</sup>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신의주 경제특구 관련 기사가 나온다. 가령 북한이 분기별로 발행하는 영문 계간지 '포린 트레이드'(Foreign trade) 2022년 11월호에서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종합 개발권을 가진 마두산경제연합회에 대하여 소개했다. 이 회사는 신의주를 첨단기술산업과 증권금융, 가공무역, 관광, 부동산 및 투자유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매체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압록

10) 임동성, 김준봉. "압록강점경 스마트리전 장기 발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권, 5호 (2022) p. 134.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마주했으며 비교적 평지", "정보통신(IT) 산업지구와 물류 지구, 무역과 금융지구, 공공 서비스지구, 관광지구와 보세 항구 등을 갖춘 종합경제지대로 발전될 계획", "압록강 변에 새로운 산업시설을 건설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지구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위한 교통망과 서비스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한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sup>11)</sup> 또한 2014년 완공되었으나 북한 측 연결도로 미개설로 제 역할을 못하던 신압록강대교가 2002년 완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의 여러 매체에 남신의주개발이 등장하는 점, 의주의 군사 공항이 2021년 2월 중국발 방역물자를 받기 위한 하역장 역할을 시행했는데 이후로 대다수 전투기가 다른 공항으로 옮겨지고 공항은 계속하여 물자하역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sup>12)</sup>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신의주의 공간변화에 점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관문도시로서 신의주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발표는 과거 북한이 추진했던 신의주 도심, 위화도, 유초도, 의주-철산-염주군 일부의 경제특구가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서단동-신압록강대교-남신의주 개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의주의 초국경 개발을 위한 난관은 국제 사회의 제재이다. 본격적인 개발은 사실상 외부 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UN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의미한 투자 유치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신의주 투자에 나설 여지가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압록강대교-남신의주 개발의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 4. 신의주의 공장과 신의주의 시장

### 1. 신의주의 공장과 기업소

신의주의 공장·기업소는 전통적으로 자립적 공급사슬 확립을 추구하며 건설되었다. 가령 의류생산에 있어서는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는 비단섬에서 생산되는 갈을 처리하여 스프(sufu, staple fiber 모직물의 대용섬유)를 뽑고, 신의주 방직공장이 갈 스프를 받아 여러 가지 직물을 생산하고 이 직물을 통해 의류사업소가 옷을 생산하였다. 해당 공장들의 기계설비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급격한 경제

11) “북한, 20년 전 무산된 ‘신의주 경제특구’ 재시동 거나”, 2022, 8, 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4154900504?input=1195m>

12) 황진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와 북중관계전망,” pp. 2-9.

(표1)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2022, p. 142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지역구분	위치	시장이름	면적(㎡)
신의주 도심	남중동	남중동시장(구 채하시장)	11,797
	신포동	신포동시장	2,711
	친선1동	친선1동시장	3,507
외곽	풍서2동	남신의주시장	8,553
	락원1동	락원1동시장	1,443
	연하동	연하동시장	865

침체로 이러한 자립적 공급시설은 일부 중국 의존적 형태로 변형되었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 및 피복 공업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화학공장으로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신의주탄산소다공장, 신의주마이싱공장, 신의주화학공장 등이 있고, 방직공장으로는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모방직공장, 신의주타올공장, 신의주편직공장, 신의주피복공장 등이 있다. 이중 신의주방직공장은 종업원 수의 비율에 있어 평양종합방직(23.9%)에 이어 두 번째 (12.7%)로 많다. 신의주화장품공장과 신의주신발공장은 신의주를 대표하는 공장이다. 이들 일용품 공장들을 통해 신의주는 중앙공업일용품 총생산액의 24%를 감당하고 있다. 신의주 신발 공장은 연간 2,000만 켤레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었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신의주시 중앙일용품공업 총생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신의주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단위이다.<sup>13)</sup>

신의주의 공장들은 생산공장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원료공장, 기계공장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운송 물류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효율성 측면만이 아닌 김일성의 교시와도 일맥상통한다. 김일성은 공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원료와 제품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신의주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에 분포하고 있다. 서북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이어진 철길을 기준으로 동북의 친선동 일대에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 고무공장, 방적기계공장, 신발공장, 강성라이터 임가공공장 등이 분포해 있으며 역의 남동쪽인 신포동과 민포동 사이에 펄프공장, 마이실린공장 등이 분포해 있다.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사로 붉은별무역회사, 8군단외화별이회사, 은별무역회사, 강성무역회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의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관과 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압록강변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sup>14)</sup>

13) 홍민 외, “북한 실태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2020, 통일연구원, pp. 85-88.

14) 앞의 글, p. 88.

## 2. 신의주의 시장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



신의주의 시장(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12.28, 검색일: 2023.06.15.)

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관리부서 역시 부재하였으나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 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sup>15)</sup> 그러나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평성, 남평은 1등급 도시로 분류되는데, 1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000원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800-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6)</sup>

신의주에는 공식적으로 6개의 시장이 있다. 그중 과거 신의주에서 가장 유명했던 채하시장은 화교 집거지인 채하동에 있었는데 확장을 거듭하여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남중동으로 이전했다. 이때 이름도 남중동시장으로 바꾸었는데 남중동시장은 북한 최고의 무역도시의 이름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어 평양, 평성과 더불어 북한의 3대 도매시장으로 불린다. 신의주 시장과 관

15)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16) 앞의 글, .pp. 64, 65.

련하여 최근 몇 년간 특이사항으로는 남신의주시장의 이전확장을 들 수 있다. 남신의주시장은 기존 6,553㎡의 규모에서 추가로 2,000㎡를 건설해 전체 8,553㎡로 확장되었다.<sup>17)</sup> 이는 남신의주 주변 지역의 신도시화, 화장품공장과 측정계기 공장 등 여러 공장의 이전, 공공시설과 아파트 건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국경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성, 그리고 신의주의 산업과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의주는 의주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조-중 관문으로서 양국 간 교류의 중심지였다. 1905년 의주로부터 분리된 이후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무역에 관여하는 상층부 일꾼들은 평양에서 파견하지만, 신의주 주민 다수가 무역과 연관된 낙수효과의 혜택을 보고 있다. 공식 무역 이외의 밀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신의주는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섬유화학공장 등의 각종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이러한 복합적 발전으로 인하여 신의주 주민들의 경제 형편은 북한의 여타도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신의주의 경제적 위상은 작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발표한 GRDP 지수 발표에서도 드러난다. GRDP는 일정 기간 특정 경제구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계를 의미한다. RFA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해양대기청(NOAA)이 운영하는 위성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2~2020년 사이 9년간 1인당 평균 GR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으로 연간 2,894달러, 신의주는 2,678달러로 나타났다. 신의주가 평양에 버금가는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sup>18)</sup> 2002년 9월 북한 정권에 의해 추진된 신의주특별행정구(경제특구)는 무산되었으나 최근 중국 측이 주도하는 중국 동북지방 개발과 연관된 신의주-단동 초국경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신의주 지방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신의주의 공간변화에 점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관문도시로서 신의주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 앞의글, p. 105.

18) 북중접경도시 신의주 경제력 2위 도시로... 평양 바짝 따라잡아, 2022, 11, 23,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3000400> (검색일: 2023, 6월 20일)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의 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교수)

## 1. 들어가면서

“소프트 변경(Soft border)”은 중국 초국경 연구를 확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 주변의 14개 국가에는 22,117킬로미터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지 변경이 일대일로라는 무대로 전시되었다. 또한 초국경 항구 도시가 변경지역에서 6대 경제회랑으로 전환되는 전초기지이기도 하다. 기존에 넓고 협소했던 교량과 도로가 신속하게 새롭고 넓은 도로로 변경되고 있으며, 서남·서북의 중요한 변경도시 곤명(昆明)과 남녕(南宁)은 고속철도를 부설하였고 공항을 보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다. 중국 남부와 서남부 지역의 중요한 변화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심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지금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中巴经济走廊)과 중앙경제회랑(中亚经济走廊)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러나 “하드 변경(hard border)”은 여전히 현실 국경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중국-인도경제벨트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영토국경문제는 점차 격화 되고 있으며, 양국 군대의 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이미 중국 국방 안보 영역, 나아가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였으며, UN의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도 시작되었다. 국경 교류가 날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분쟁을 완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경 문제에서의 핫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렇다면 “소프트 변경”이라는 시각에서 동북아 초국경 도시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가 반군사화관리 문제로 변모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대세로 된 상황 속에서 “소프트 변경”이라는 시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2. 100년 전의 “소프트 국경” 경험

변경 소도시에서 동북아 요충지로 단동과 신의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지역이다. 1860년의 단동(안동)인구는 만 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신의주의 인구는 5천 명 미만이었다. 오직 조선사신과 당시 지식인이 작성한 “연행록”만이 단동과 신의주의 지리환경, 풍속인정 및 양국 교류와 상인들의 물품교류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은 북경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와 역참이었지만, 경제 무역 왕래가 활발하지 않아, 정치·경제적으로 이 시기의 단동과 신의주는 변경지역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였다.

해양과 수상운수의 시각으로 역사자료를 검토할 경우에도 청나라 광서(光緒) 연간 안동이 조운항구로서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청나라 광서 원년(1875년), 수정한 안동현지에는 안동이 항구로서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다만 기록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수리공사의 내용으로 안동 하천이 장기간 범람하여 순조롭게 바다로 합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다리를 놓고 철도를 부설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안봉철도<sup>1)</sup>와 경의철도의 연결은 압록강유역의 경제가 한동안 신속하게 발전하고 번영하도록 하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정(大正) 6년(1917년), 안동을 거쳐 조선으로 향하는 승차인원 규모(대부분이 조선인·일본인이고, 중국인과 기타 국가 사람이 소수임)는 76,019명, 티켓 영업액은 198,973.71 위엔이다. 안동을 거쳐 만주리, 하얼빈, 장춘, 봉천으로 향하는 승차 인원(대부분이 중국인)이 2%를 차지하고, 영업액이 3,748.92위엔이다. 대정 7년(1918년) 안동철도를 거쳐 한반도를 향해 일본으로 운수하는 물품은 쌀 4,344톤, 목재 522,480톤, 콩기름 47,276톤, 석유 1,611톤, 금속제품 858톤에 이른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철도운수로 인해 단동과 신의주는 날로 변화한 교통 중심이 되었다.”

기초시설 건설 시, 두 초국경 도시의 연합효율문제를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개발과 사용, 토지, 노동력 배치 등에서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침략한 이후, “만선일여(滿鮮一如)”, “만선합일(滿鮮合一)”이라는 명목 하에 두 지역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만주-조선 서부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두 지역의 자원, 노동력, 토지 등 경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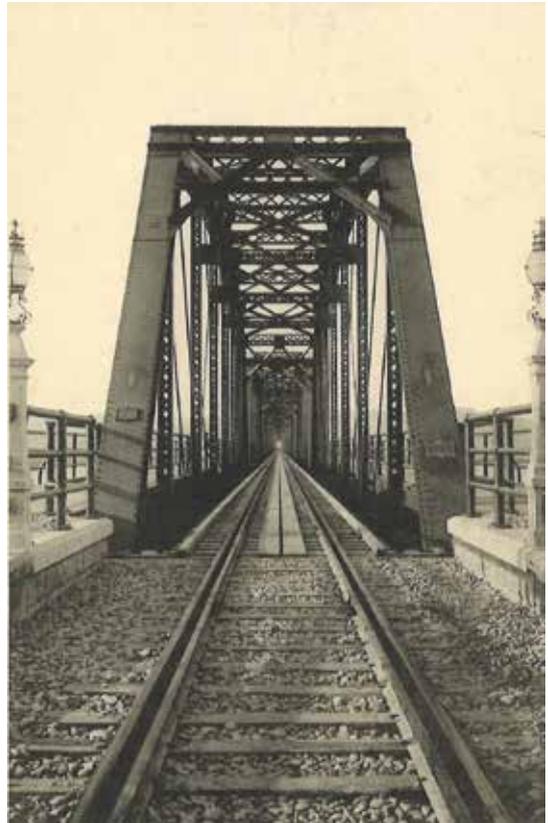
1) 안동(현재의 단동)에서 봉천(현재의 심양)을 잇는 철도, 편집자 주

를 최대한 통합 조정하여 더욱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전략물자를 비축하고자 하였다.

일본 점령시기 일본은 또 선후로 “산업5년계획”을 실시하여 압록강 양안과 그 주변지역에서 차량, 선박, 제철, 채굴 등 공업을 발전시켰다. 아울러 안동에서 은행과 상품 교역소를 설립하여 주식, 상품, 금전 등 금융업무를 경영하였다. 1937년 일본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와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압록강에서 당시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력식 저수댐-수풍댐(水丰大坝)을 건설하였다. 또한 수풍에서 안산, 수풍에서 안동, 수풍에서 대련, 대풍만에서 봉천, 수풍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고압송전선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운봉(云峰), 의주(义州), 환인(桓仁) 등 지역에 수력전기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시설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두 초국경 도시에서 공유하고 있다.

신의주의 부흥과 대규모 건설도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서울에서 압록강까지 이르는 군사용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철도 노선의 북쪽 기차역이 바로 신의주이다. 일본은 신의주를 대동아의 관문으로 간주하고, 일-러전쟁, 일-청 전쟁시기에 모두 중요한 군사보급소로 활용하였다. 1905년 일-러전쟁 이후, 일본은 임시 군사용 철도를 경의철도노선으로 개량하였다. 이에 따라 신의주 기차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점차 많아졌으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끊임없이 신의주에 우체국과 세관 등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의 기능과 행정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1910년 일본은 또 평안북도의 도청을 의주에서 신의주로 옮겼다. 1911년 안봉철도와 조선철도 국경 개통 협정을 체결한 이후, 신의주는 압록강유역과 중국 동북지역 자원의 운수 중심지이자 화물 집산지로 자리잡았다. 1914년 행정구획을 조정한 이후 신의주는 평안북도의 수부(首府)가 되었다. 당시 신의주의 인구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07년 1,398가구 5,981명에서 1940년 1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의주는 당시 규모가 비교적 큰 공업항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북한 제2의 대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신의주-단동 철교(현재의 단교), Haku 목사 제공

### 3. 단동-신의주 국경교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신의주에서 바라본 단동

국가전략으로서 단동발전 모델은 성공할 수 있는가? 2003년 중국은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는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는 『동북지역 진흥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이후 2009년, 2012년, 2013년에는 또 선후로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을 한층 더 깊이 실시하는 몇 가지 의견, 『전국 노공업기지 조정 개조 계획(2013-2022년)』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무원에서는 두만강, 압록강의 주변 변경도시 단동과 연결을 포함시켜 3개의 발전지역 국가정책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중조 변경지역 단동과 연결의 개발과 개방이 모두 국가전략에 포함되었다.

비록 단동, 연결 등 변경지역 도시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가전략 발전 대상으로서 다른 연해도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발전속도가 느리고, 발전규모와 질적인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동은 독특한 지리적 우세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지만, 전반적인 발전전략이 요녕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내향성 지역발전모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다면 북한의 “학습모방”은 성공할까? 단동의 발전 속도는 건너편의 신의주에 비해 아주 월등하다. 북한은 신의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특구를 설립하였다. 심지어 일부 조치는 이미 개혁개방 초기의 특구 경제 모델을 뛰어넘어 과감하게 권력을 아래로 이양시키고, 외국인을 특구 행정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괄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련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북한은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융합되려고 노력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취득하였다. 예컨대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1992년에 헌법을 수정하여 기관, 기업단체가 해외의 법인 혹은 개인과 기업합병, 협력을 추진하도록 독려

하였고, 경제특구에서 다양한 기업을 설립할 것을 지지하였다.

2000년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상해 포 동신구 등 경제특구를 시찰하였고, 귀국 후에는 북한의 발전전략을 조정하였다. 2001년 북한은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고, 사상관념·사고방식·투쟁기조·업무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2004년 북한은 『사회주의상업법』을 개정하여 상업운영기제를 “배급제”에서 “유통제”로 전환시켰다.

2002년 9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정식 성립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국적의 화인(華人) 양빈(杨斌)이 첫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양빈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신의주특구의 건설은 정체되었다. 2002년 8월 북한 내각에서는 신의주 특별 행정구를 폐쇄한다는 명령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신의주 특구창설준비 위원회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합병시켰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개설했던 “특구 경제”가 막을 내렸다.

이상으로 단동과 신의주의 일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비록 두 도시 모두 국가전략발전계획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나, 그 결과는 100년 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이러한 시도의 실패는 2005년 후진타오(胡锦涛)가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변경도시의 발전을 조정하는 협의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4. “해양-소프트 변경”이라는 시각으로 초국경 도시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개발한다.**

단동과 신의주는 두 쌍둥이 남매와 같이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이며, 동북아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1939년 2월 16일, 일본 총무청에서는 대동항도읍계획을 제정하여 낭두(浪头)에서 삼도구(三道沟)까지 동향시 동사무소 안강촌을 인구규모가 200만 명에 이르는 공업도시로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1969년까지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단동 발전계획도 1939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단동 뿐만 아니라, 신의주의 경제, 도시계획도를 검토해 본다면, 신의주도 마찬가지로 철도로 연결한 다사도를 포함한 일본인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신의주가 기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자로서 두 도시를 하나의 경제영역 범주에서 도



단동에서 바라본 신의주 북동부 외곽

시 발전을 기획하였기에 최종적으로 지정학적 우세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전략 하에 “해양”이 점차 핵심 주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공영의 방식으로 변경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주변 국가의 인정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제질서가 변화되고 각국의 이익이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일본·베트남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유럽·남미·서아시아·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이 갈등보다 많은 상

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특히 중요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서 고려할 때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국경시각에서 볼 경우, 단동과 신의주는 쌍둥이 도시이며 해양 전략의 산물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은 적극적으로 식민지국가의 연해도시를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식민지 전통지역의 핵심지역을 와해하고 약화시켰다. 공업화, 근대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명목 하에 식민지화를 합법화시켰다. 동아시아 각국 식민지에서 이렇듯 식민해양도시를 발전시키고, 전통 내륙도시를 약화시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였다. 조선에서 “주(州)”자가 붙은 내륙 각지 수부(진주, 상주, 전주 등)의 지위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반대로 연해 지역의 인천, 부산, 청진, 신의주(의주를 대체함), 대만의 고웅(高雄, 가오슝), 중국의 대련, 안동(단동) 등 근대 항구도시가 신속하게 발전하여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대”는 중국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것이다. “일대”는 국가 간의 연계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도시 간의 연계이다. 다만 해양 국경도시의 발전기회가 더 많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은 열악한 국제 환경과 장기간 주도해왔던 대륙형 변경이념에서 벗어나 해양 발전관을 양성하고, “소프트 변경”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숭실대 명예교수)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망을 안겨준 두 도시가 있다. 북한의 서북쪽 압록강 귀퉁이에 위치한 신의주와 동북쪽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라선이 그 두 도시이다. 이 도시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라선을 싱가포르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김일성의 선언이나 신의주를 ‘북한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던 김정일의 야심찬 계획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도시들은 실망스럽게도 그 선언이나 계획 등에 비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도시들의 지지부진한 발전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유는 특히 이 도시들의 발전 잠재력이 높았고, 또한 북한 정부도 도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라선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각 무역이 가능한 곳이며, 중국이 북한을 통하여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모방하여 1991년에 최초로 라선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련의 붕괴 이후 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1995년에 라선을 직할시로 통합하여 승격시켰고, 1997년에는 환율 현실화 조치와 외화 사용 규제를 폐지했으며, 1998년에는 자본주의식 자영업 허용과 국제자유시장을 개설 등 도시에 활력을 부어 넣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매우 저조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나선특구 개발은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이후 북한은 2005년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개칭하고, 경제특구에 대한 통제를 이전보다 강화함에 따라 라선은 아직도 도시발전을 위한 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조중우의교

한편 신의주는 북한의 서북쪽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의 단동시와 연결되며, 압록강 하구를 통해 중국의 대련과 북한의 정부, 남포, 해주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신의주는 일제강점기부터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의 중심지였고, 해방 이후에는 화장품, 신발공장 등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북한은 그동안 신의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신의주는 북한에서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특히 2002년에는 김정일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발전을 도모했으나, 그 아이디어는 중국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김정은은 2013년에 신의주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경제지대로 변경 지정하여 신의주 도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신의주 경제특구도 아직 북한의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북한이 이 두 도시들에 대해 기대를 갖고 발전을 도모해 왔고, 북한과 인접 국가들도 이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왜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가? 우선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이 도시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지만, 북한은 유일하게 그 체제를 고수하다보니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해당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북한 경제특구에 참여와 협력의지를 보여 왔으나,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등이 이들 접경지역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북한 지도부나 중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라선이나 신의주 등 북한 경제특구 개발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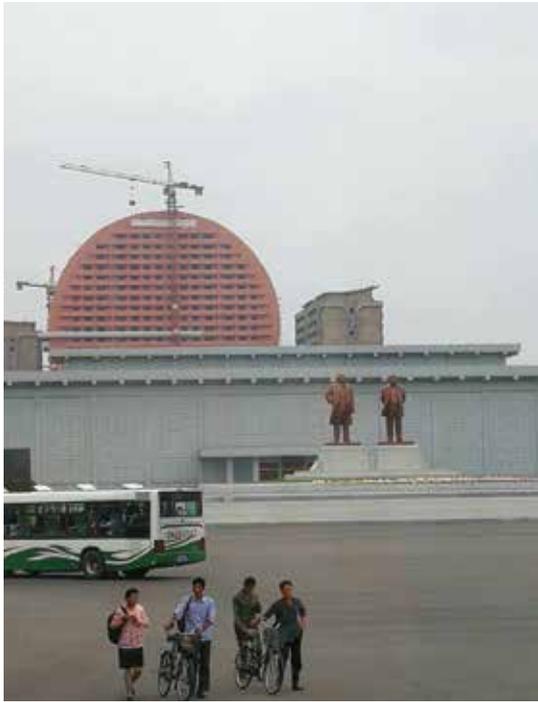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가지 의문은 체제 전환이나 핵개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북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도시들의 미발달 요인으로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발전에 요구되는 제도 및 인프라 기반의 부재와 접경지역 도시발전에 중요한 인접국과의 초국경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체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북한이 접경지역 도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국경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초국경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시 여건을 갖추는 일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등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

에서 우리는 이 미발달 요인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그 자체적인 도시발전의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북중 접경도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초국경 협력을 통해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협력의 투 트랙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중 접경지역 도시 발전을 위한 투 트랙 접근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 전략을 말하는가? 간단히 말해 투 트랙 접근법은 접경지역 도시 발전을 남북 간의 협력과 초국경 협력 등 두 가지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트랙은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 도시 발전 여건의 조성 및 관련해서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북한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남북한 신뢰 형성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북한에게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체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남북중, 남북러 3각 국제협력이나 북방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과도 연계를 가질 수 있어 실질적 효과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의 전력공급 확대, 수송망 확충 사업, 통신 및 기반시설의 현대화 등이 인프라 개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자본 조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개발은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 소요와 투자회수기간의 장기화로 타당성 조사 등 초기 매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자금 조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북한 특구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남한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원 보조를 위해 과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활용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 시 패키지 딜 성사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북중 접경도시 발전의 두 번째 트랙은 초국경 협력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다. 초국경 협력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므로 단일 국가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거버넌스 체계로는 관리할 수 없고 다차원 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정한 지역의 초국경 협력의 거버넌스는 각 국가의 제도적 차이나, 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 및 비공식적 메커니즘의



신의주 관문동에 건설중인 26-8, 9, 10 살림집으로 알려진 건물

존재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으로 접경도시 발전을 위한 초국경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핵심 도시들의 관심 정도, 국가의 관심 정도 그리고 초국경 협력에 관련되는 수많은 제도들의 존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 협력에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 대상이 된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체제의 차이, 정치적 의지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언어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초국경 협력을 가능하게 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협력을 해야 할 주체들간의 공동의 전략이 부재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국경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도시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주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 지역의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법적 체계를 가지고, 행정구조도 다르다는 문제가 제약요인이 되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낮을 수도 있다. 물론 초국경 협력의 주 행위자가 중앙정부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는 협력의 기본 틀 제공에 그 역할을 한정한다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지방 또는 지역정부 등 공적인 행위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이거나 또는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중 접경지역 도시발전을 위해 왜 다중적인 투 트랙 접근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투 트랙 접근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 접경지역 도시발전은 이 두 가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거 중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초국경 협력이 북한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초국경 협력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기껏해야 소비시장, 싼 노동력 확보 또는 자연자원의 확보 등의 차원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파트너 관계로서 초국경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및 물질적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남북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발전은 초국경 협력없이 남한과의 협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접경지역 도시들은 인접국과의 초국경 협력이 해당 도시발전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북한의 도시가 도시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인프라 기반을 갖추더라도, 접경지역 도시발전의 모멘텀은 초국경의 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바른 초국경 협력을 위해서는 현재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은 중국과의 쌍방 경제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되 스스로 도시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그러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중 접경지역 도시발전은 이 두 가지 협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두 트랙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끝으로,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을 북중 접경도시개발의 두 트랙 전략이 가져다 줄 기대효과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이 전략을 통해서 북한의 접경지역 경제특구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이 1991년에 라선 그리고 2002년에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래 수차례 개발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중국의 소극적 입장과 기존 인프라 부족 및 북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영향으로 이 도시들은 경제특구로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에 이글이 제시하는 두 트랙에 기반을 둔 접경지역 도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다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의주 특구는 중국 단둥과 연계해 자본과 노동이 밀집되고, 제조업 발전 가능성이 특구 중 가장 유망하며, 동북3성과 북한 내지라는 배후 시장 존재와 환황해권 바다와 연결되는 지리경제학적 이점이 있다. 이 도시의 개발을 저해해 온 요인들을 분석하여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북한경제 성장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 경제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트랙 접근법은 북한 접경도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물리적 기반의 구축을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접경도시 개발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상황과 별도로 경제특구개발 협의에 나섬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거버넌



신안록강대교, 2014년 건설되었으나 북한측 진입로의 미비로 최근까지 유명무실한 교량이었다. 최근에 북한측 진입로 개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스 협조를 통해 상호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제관계의 이론 가운데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는 협력하기 쉬운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서 합의가 어려운 정치, 군사적 협력과 통합으로 나아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독일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 교류 협력의 선행을 통해 통일 여건을 조성했던 사례가 있다.

그런가 하면, 투 트랙 접근법을 통한 점경 도시발전은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초국경 협력도시 확보 측면에서 기여가 클 것이다. 예컨대, 신의주가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 아래 개발될 경우,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신의주는 한반도(목포-서울-평양-신의주, 부산-대구-서울-신의주)와 중국과 몽골-러시아로 연결되는 거점 도시이자 초국경 도시권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신의주 경제특구 운영에 대해 남한이 주도적일 가능성을 내포하며, 미중일러 등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충엽 (숭실대 교수)

## 들어가는 말

신의주 지대는 침수되는 저지대로 농사도 할 수 없이 버려진 갈대밭이었습니다. 일본이 1904년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의선을 설치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경의선은 일본이 서울부터 신의주까지 군용철도로 설치한 철도입니다. 신의주란 일본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914년 의주부 안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 ‘신(新)’자와 의주(義州)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sup>1)</sup> 신의주는 “평안북도 북서쪽 압록강 하류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 소재지. 동쪽은 의주군, 피현군, 남쪽은 룡천군과 접해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쪽(연하동)-서남(류초리) 간의 길이는 20km이고, 북서(방직동)-남동(산교리) 간의 길이는 13km이며, 면적은 180여 km<sup>2</sup>로서 도 전체면적의 1.42%를 차지한다. 현재 행정구역은 49동 9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up>2)</sup> 신의주에는 2008년 시점으로 359,341명이 있습니다.<sup>3)</sup>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남한의 식량 지원이 대부분 중국 단둥시를 통해서 신의주로 들어갔습니다.<sup>4)</sup>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를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북한은 중국 어우야그룹 회장이자 네덜란드 화교인 양빈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양빈이 중국 공안에 구속된 이후에 신의주특구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sup>5)</sup>

이후에 신의주는 특구개발에는 실패했지만 북중 무역의 거점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무역에서 무역량의 80% 이상이 단둥과 신의주를 거쳐 북한 전역

1)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vol.5., (서울: 신흥 P&P, 2005), 68.

2) 위의 책, 68.

3) 이주철, 윤해숙, 『KBS 북한 취재 제작 핸드북』, (서울: KBS 남북교류협력단, 2018), 92.

4) 김영수, “북한 인상기: 신의주 편.”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 소식』, 1999, 14-15.

5) 이상만, “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 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북한연구학회보』, 2003, 7(1).



압록강 중하류 단동과 의주 가 마주 보는 지역에는 한밭짜국이면 강을 건널 수 있다하여 “일보과”라고 불리는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으로 유통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경제특구정책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2013년 당 전원회의를 통해 신의주를 ‘특수경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를 ‘국제경제지대’(International Economic Zone)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특구 중심의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북한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sup>6)</sup>

김정은이 2018년 7월 신의주를 방문하여 신의주 화장품 공장, 신의주 방직 공장,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생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sup>7)</sup> 11월에 두 번째로 방문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sup>8)</sup>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 해에 신의주를 두 번 방문하여 현

지 지도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글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신의주를 통해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통일 이후에 북한에 교회를 재건하고 개척하는 일을 준비해왔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 사역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한 건강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에 교회가 통일 전에 북한 땅 위에서 ‘선한 행동’을 펼쳐 놓는 건강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가 통일 전에 전문 선교 사역자가 신의주와 단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2015, 27(3), 228-229.

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7월 2일.

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 11월 16일.

## 본론

신민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둥은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했고 한국, 일본, 미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sup>9)</sup> 중국은 단둥을 통해서 신민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체제의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sup>10)</sup>

북한은 2012년 7월 4일에 평양에 ‘신민주지구개발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설립의 목적은 “신민주국제경제지대의 하부구조구축, 첨단기술산업, 금융증권, 보세 가공무역, 관광,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sup>11)</sup> 북한이 중국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에 신민주-단둥은 가장 큰 교역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보낸 사역자가 이곳에서 과거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변화하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역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상황은 2014년에 신민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특구 내의 인구는 신민주시 전체 인구 36만 명의 70% 정도인 24만 4천 명입니다. 구역은 최신정보 기술산업 구역, 생산산업구역, 물류 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허가된 산업 분야로 최신정보기술로 컴퓨터 제작, 통일설비 제작, 가정용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제품이며, 생산 및 가공은 자동차, 피복, 전자제품 등이며, 무역 및 금융은 조중우의교, 신압록강대교, 신민주항 무역, 중계무역, 유가증권, 금융서비스 발전이며, 관광산업으로는 민속문화, 체육, 유원지, 유희오락, 공원조성, 레저산업 등입니다.<sup>12)</sup> 북한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신민주와 단둥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 중국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15-18일에 개최한 제4회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계기



단둥역앞 북한관광을 위해 이동중인 관광객들의 모습

9) 박종철, 정은이, “국경도시 단둥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 2014, 150.

10) 박종철, 정은이, “국경도시 단둥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인프라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72, 2014, 150.

11) 신민주지구개발총회사, 『신민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 2014년 10월. 14.

12) 위의 자료, 14.

로 ‘호시무역구’를 단동시에 설립하는 비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 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며 상품교환을 허락하는 무관세 민간 교역을 의미합니다. 이 호시무역은 단동으로부터 접경지역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북한과 중국 거주민은 1인당 하루 8천 위안 이하 내에 수입관세와 과징금 면제로 민간교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sup>13)</sup> 앞으로 신압록강대교가 개통이 된다면 단동-신의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 단동에서 중국의 대도시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은 신의주와 평양, 남포와 거점도시들과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평양과 평양-신의주로 연결되어 중국대륙과 연결되어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신의주는 중국 관광객이 통행증 없이 신분증만으로 관광할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북한은 2018년 한 해에 약 1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sup>14)</sup> 김정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기반으로 보면 이 사업은 중요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통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조바심을 표현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는 다가오는 신의주-단동의 새로운 상황 안에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여야 하는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첫째로는,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가 직접 신의주-단동의 공간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2023년 재중 조선족 170만 명 중에 한국에 체류하는 재한 조선족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의 재한 조선족은 한국말과 중국말이 유창합니다. 중국 국적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친족이 북한에 2-3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 중국 땅 위에 조선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세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재한 조선족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주류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북한을 품고 사역자가 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 신의주-단동의 공간에서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

13) 성시현, “북·중 중국 단동시에서 호시무역 재개(2),” 『KOTRA 베이징』, 2023년 07.03 접속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7061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70619).

14) 조선일보, “북관광 중국인 120만명, 1년새 50% 급증,” 2019년 5월 27일.

둘째로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는 중국 땅에서 북한 여성이 낳은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20대가 되어 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 의해서 신앙적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머니의 고국을 향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업가로 신의주와 단동의 공간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로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는 Global Church와 협력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 단동은 국제도시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무역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국제도시입니다. 이 공간에 보낼 Global Church는 세 가지 장소로부터 가능합니다. 먼저는 사역자가 사는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에서 단동으로 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한 다문화 그리스도인 중에 헌신한 사람이 단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열방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양육하여 지도자가 된 현지인입니다. 그 현지인은 현지를 전도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북한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단동이라는 공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중국 공안이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양빈을 체포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의주를 방문하면서 신의주 개발을 다시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sup>15)</sup> 그 시기에 북한은 한국 기업을 초빙하여 신의주 개발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와 기업은 신의주보다 개성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단동-신의주 공간 안에서의 어떤 사업을 한국에 제안할 경우에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좋은 선교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신의주를 통해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의주 -단동이라는 공간은 북한선교를 위해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 헌신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3가지 모형 -훈련된 조선족, 중국 땅에서 북한 여성이 낳은 자녀, Global Church의 소명자- 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가 재한 조선족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15) 한겨레, “김위원장 신의주 특구 13개 경제개발구 설치 공식 발표,” 2002년 11월 1일.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조중우의교  
와 6.25때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단교

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살아가는 북한 여성이 낳은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현지인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와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가 미래로부터 다가올 선교의 기회인 신의주-단동 공간에 보낼 사람을 준비하여 선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참고문헌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7월 2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 11월 16일.
- 김영수, “북한 인상기: 신의주 편,”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 소식』, 1999.
- 박종철, 정은이, “국경도시 단동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 2014.
- 성시현, “북·중 중국 단둥시에서 호시무역 재개(2),” 『KOTRA 베이징』, 2023년 07.03 접속.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7061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52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70619).
-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 『신의주국제경제시대 투자안내서』, 2014년 10월.
- 이상만, “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 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북한연구학회보』, 2003, 7(1).
- 이주철, 윤해숙, 『KBS 북한 취재 제작 핸드북』, (서울: KBS 남북교류협력단, 2018).
-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2015, 27(3).
- 조선일보, “북관광 중국인 120만명, 1년새 50% 급증,” 2019년 5월 27일.
-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vol.5., (서울: 신흥 P&P, 2005).
- 한겨레, “김위원장 신의주 특구 13개 경제개발구 설치 공식 발표,” 2002년 11월 1일.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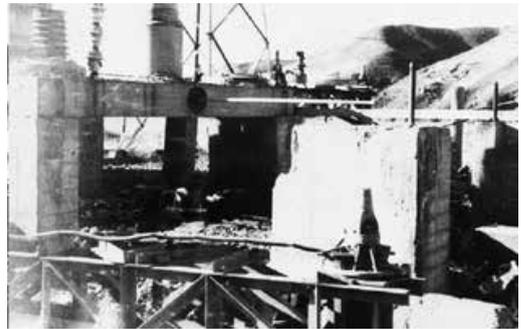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

북한의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국가상징물 국장(國章)은 1948년 북한 정부 수립기에 고안되었다. 국장(國章)은 이념과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그 상징 가운데 하나가 경제력이며 국장 안의 수풍발전소 이미지에 그 의미를 표현했다.

수풍발전소는 신의주 인근 평북 삭주군에 있으며 압록강 하구 신의주 동북동 약 80km 지점에 있다. 1930년대 말 일제의 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와 만주국(滿洲國)이 공동 출자해 공사를 했다. 길이 900m, 낙차(落差) 106.4m, 용적 330만 $m^3$ 의 댐이 건설됨으로써 총설비 용량 64만 KW, 최대출력 54만 KW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담수면적 345 $km^2$ , 유효저수량 76억 $m^3$ 의 대인공호가 조성되었다. 당시 이 댐은 세계적인 규모의 수력발전소로 이름을 날렸으며 생산된 전기는 한반도와 만주에 반씩 분배했다.

수풍발전소가 건립되면서 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한 공업지대가 신의주 일대에 조성되었다. 해방 전 신의주에는 방직공장, 잠사공장, 제사공장(비단실생산), 펄프공장, 제지공장, 제유공장(대두유생산), 피복공장(양말, 내의생산), 화학공장(성냥생산), 고무공장(신발생산), 주정공장(알코올 생산) 등이 있었다.

신의주의 역사는 1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초반 러일전쟁 과정에서 서울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급조되었다. 신의주(新義州)는 새로운 의주(義州)를 의미한다. 기존의 의주 옆에 만주의 안동(현재 단동)으로 압록강 건너 바로 연결하는 지점에 역을 신설했는데 그 이름을 '신의주역'이라 했다. 철도역 개설과 함께 신의주 지역은 급격한 성장을 한다. 무역이 발달하고 관공서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학교가 설립되었다. 신의주역은 한반도와 중국대륙, 아니 당시에는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의 중간 기착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완공 직후의 수풍댐(왼쪽), 6.25 때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수풍발전소(오른쪽)

## 신의주화장품공장 그리고 화장품 ‘봄향기’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신의주지역 공장들은 북한 당국에 수용되었다. 1949년 9월에는 비누 등 미용용품을 만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이 문을 열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경제 분야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산업화 중에서도 특히 중공업 분야에 집중한다. 김일성 정권 초기 북한은 중공업 우선 추진 정책과 동시에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그 보완책 중 하나가 바로 이미 경공업 분야에 산업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에 화장품공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신의주 화장품은 북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비누, 치약, 화장 크림, 머릿기름, 향수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북한의 화장품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그렇듯이 품질 수준은 높지 못하다. 대부분 기초화장품 위주로 되어 있고, 색조가 기타 제품은 선진국 제품들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화장품 전문가들은 북한 화장품을 한국의 1980~90년대 수준으로 평가한다.

신의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출처: 중국중앙방송, CCTV)



북한이 화장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고 부터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합성 유화제를 쓰지 않고 무균성 샘플을 써서 노화 방지와 미백효과가 큰 천연 기능성 약재들과 천연건강 약재들을 배합한 천연화장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3년 공장의 자체적인 브랜드 ‘봄향기’를 출시한다. ‘봄향기’란 이름은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春香)의 순우리말로 젊은 봄 향기

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춘향전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인기 있는 고전 이야기이다. 저품질의 단순한 기능성 중심의 북한 화장품 업계에서 ‘봄향기’의 출시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딩의 시도였다. 북한 당국은 2005년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제품 개발 과정을 다룬 홍보영화 <봄향기>를 만들기도 했다.

화장품 봄향기는 북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된다. 살결물(스킨), 물크림(로션), 머리영양제 등 구성이 다양하다. 최대 7종의 화장품을 생산한다. ‘금강산’과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추가한 제품은 주로 수출용이다. 내수용 제품에는 생산자를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표기하는데 여기에는 북한 가장 크고 전통 있는 화장품공장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반면, 수출용은 ‘조선봄향기합작회사’의 상표로 판매되며 제품 설명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해외에서 신의주제품의 원산지 인지도 부족에 대해 ‘봄향기’라는 제품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선봄향기합작회사로 표기된 제품 중 일종 서브(sub) 브랜드인 ‘금강산’의 경우 포장 용기, 주원료, 기술 방식 등이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다. 제품 겉면에 ‘금강산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약효 성분이 뛰어난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고,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샘솟는 맑고 깨끗한 물과 희귀한 천연식물 30여 종의 추출물,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해 만든 조선의 이름난 화장품’이라 쓰여 있다.

또한 ‘피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 탄력강화, 뚜렷한 미백 작용, 주름 방지, 보습 효과가 뛰어나 젊음을 되찾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다기능성 화장품입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한 마디로 개성고려인삼이 주원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용기에 담았다. 봄향기합작회사는 화장품 외에도 미안막(마스크팩) 아이크림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선방지크림과 미백작용을 한다는 BB크림까지 생산한다.

## 미완의 신의주 경제특구

신의주 경제 발전을 이야기할 때 2002년 시도되었던 신의주 경제특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2002년 9월 12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했다. 일종의 경제특별구역인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요한 실험의 시작이었지만, 이 실험은 북한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계획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다.

# 인민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세계의 각국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인민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흥미롭다. 최근 1주일 동안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 저당 음료, 저지방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 화강암 관련 시회도 높고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흥미롭다. 최근 1주일 동안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식품, 저당 음료, 저지방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의 화장품전시회 관련기사 (로동신문 캡처)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경제특구였다. 중국의 최고 실권자 등소평은 남중국의 여러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했다. 경제특구는 1980년대 대외 개방을 시작한 중국에게 국가사회주의에 둘러싸인 자본주의의 섬과 같은 역할을 했다.

중국의 발전상을 보며 북한 정권은 경제특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북한에서 특구는 지정학

적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했을 뿐 아니라 철도와 도로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구도 많고 노동력도 풍부하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초반 라선특구를 조성하며 지나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신의주 경제특구를 보다 자유로운 경제구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처음 계획은 홍콩과 비슷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신의주 경제특구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할 것까지 고려했다.

무엇보다 당시 북한이 고민한 것인 경제구역 관리에 대한 고민이었다. 북한 간부들 중 경제 특별구역을 관리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신의주 특별구역 책임자로 외국인인 임명했다. 양빈이라는 중국인 사업가였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출발은 파격적이었지만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중국의 반대가 가장 컸다. 중국 측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북한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반대했다. 중국은 신의주 특구가 성공한다면, 중국 기업의 경쟁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양빈은 중국에서 비리와 불법행위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중국 측은 신의주 특구가 마카오보다 악명이 더 높은 도박, 마약, 불법행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북한이 중국인 양빈을 경제특구 책임자로 임명한 지 보름도 지나기 전에, 중국당국은 양빈을 체포한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말만 무성했다가 진척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다.

## 신의주의 경제는 어디로

2002년 신의주 특구는 사실상 무너진 이후 신의주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라졌다. 김정은 시대가 열린 이후 다시 경제특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북한 내외부의 문제로 진척은 있지 못하다. 신의주는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발전한 도시다. 신의주를 관통한 철도는 외부 자본에 의해 개설되었고 신의주 주변의 사회간접 시설들을 처음 만들 때 목적인 민생(民生) 보다는 대륙을 침략하려는 일제의 욕망이 컸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늦가을 한반도에 들어온 소련군에 대항해 처음으로 시위를 벌인 곳도 신의주다. 다양한 세력, 문화, 가치의 교차점이다 보다 새로운 문물을 처음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력 간의 갈등이 충돌하기도 한다. 지정학인 요충지에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국경도시 신의주의 문제는 단순한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다. 외부 세력과 협력하지 못하면 신의주는 발전할 수 없다.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단둥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인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를 홍보하면서 상품에는 사상·문화적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의 욕구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북한에서의 상표는 국가가 주입하고자 하는 사상성이 담길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상품 소비자의 사상·감정과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상표는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해도 결코 공감을 살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사상성을 모범적으로 표현한 상표가 바로 ‘봄향기’ ‘은하수’ 등 화장품 상표라고 치켜세운다.

하지만 한국 영상물의 북한 유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을 통해 밀수로 들어가는 한국산 화장품은 북한에서 인기다.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봄향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북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배우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가 있다.

‘봄향기’와 ‘봄향기’제품을 생산하는 도시인 신의주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한국 드라마 속 등장인물보다 더 아름답게 사람들을 꾸며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봄향기’와 ‘봄향기’를 만드는 도시 ‘신의주’가 나아갈 길이다.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완 (동아대 교수)

중국 단둥(丹東)은 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동쪽의 붉은 도시라는 뜻에서 단둥이라 했다. 하지만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은 단둥이 아니라 신의주에서 솟구친다. 북녘땅 신의주의 여명을 사진에 담는다. 희뿌연 구름 사이를 뚫고 압록강을 붉게 물들인다. 독재와 억압만 아니라면 저 이글거리는 태양의 기운이 촉복처럼 내려앉을 땅이다. 어둠이 내리는 압록강에는 단둥과 신의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다.



한쪽에서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한낮처럼 밝은데, 다른 한쪽은 어둠만이 온 도시를 감싼다. 단둥의 월랑도는 달이 비추이는 섬이라는 뜻으로 고급아파트단지라 형성되었다. 한밤에도 네온사인의 불빛은 압록강을 적시고, 오가는 차량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하지만 신의주의 밤은 정말 달빛 하나만이 도시를 희미하게 비칠 뿐이다. 한낮에 보이던 신의주 시가지의 모습은 밤이면 흔적도 없이 사

라진다. 전깃불을 밝히지 않은 채 도시는 그야말로 어둠에 묻힌다. 분명 저곳에도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땅은 낮에도 밤에도 그저 암흑으로 뒤덮였다. 압록강 건너 단동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신의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암흑으로 뒤덮인 신의주 시가지에서 그나마 불빛 하나를 보게 된다. 그곳은 다름 아닌 김일성-김정일 초상사진이 있는 건물이다. 주민들이 사는 집은 실낱같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데, 독재자의 얼굴에는 환한 불빛을 밝힌다. 사진 한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초상사진은 낮에도 밤에도 빛난다. 독재의 어둠이 내려앉은 신의주 시가지에 주민들의 신음은 더욱 짙어진다.





건물 사이로 신의주 기차역 안내판이 보인다. 코로나19로 봉쇄되었던 북중국경이 곧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압록강 철교에는 또 어떤 애환이 오가게 될까? 단동과 평양을 오가는 기차길이 열리지만 정작 한국 사람만이 갈 수 없는 길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지난 기차는 언젠가 되어야 신의주 기차역까지 한걸음에 내달릴 수 있을까? 그 반대로 신의주 기차역에 오른 북한 주민들이 부산 해운대로 여행가는 꿈은 언젠가 되어야 현실이 될까?



두 개의 압록강 철교 중 하나는 6.25전쟁 중 반이 잘려나갔다. 그 자리에는 관광객들의 발길만이 반쪽 조국을 내려다 볼 뿐이다. ‘중조우호교’라는 이름으로 신의주와 중국이 연결되지만 한국사람의 신분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일 뿐이다. 분단은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못한 채 아련한 그리움과 애환으로 남아 있다. 이제 저 장벽을 부수고 길을 여는 건 우리들의 몫이자 사명이리라. 🐟

# 신의주(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 1. 기독교 전래기로부터 해방까지

### 1. 의주, 신의주 초기 교회와 휘트모어(Norman C. Whittemore, 위대모, 1870-1952)

의주는 한국교회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등 의주 출신 상인들이 봉천(奉天, 현재의 요녕성 심양瀋陽)지역에서 존 로스(John Ross, 1942-1915)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번역을 도와 1982년 최초의 조선어 성경인 누가복음서가 출간되었다. 출간된 누가복음을 조선으로 반입하려 이응찬이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뒤이어 백홍준에 의해 성경은 조선으로 반입되는데, 이때 성경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들의 고향인 의주였다. 백홍준의 전도로 의주 지역에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후 내한한 언더우드, 마펫, 게일 등의 선교사들도 의주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집회를 인도하였다.

의주-신의주에 처음으로 정착한 선교사는 휘트모어(Norman C. Whittemore, 위대모, 1870-1952)이다. 휘트모어 선교사는 1896년 10월 26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안북도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받는다. 그는 1897년 9월 29일경 의주에 정착하였고 이후로 선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1929년 대한기독교서회 총무사역을 위해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30년 이상을 신의주, 의주, 선천, 용천 등을 오가며 열정적인 사역을 이어갔고 당시 그가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는 당시 신의주의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휘트모어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는 1899년 의주와 주변 도시를 8주간 600km를 여행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 그는 20여 개의 예배 처소를 돌아보고 220명을 교리문답하여 166명을 통과시켰고, 40명을 문답하여 3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1901년에 이르러서는 의주로를 중심으로 서남쪽에 읍내교회와 6개 공동체, 의주로 북동쪽 8개 공동체, 서구역 6개 공동체(100여 명), 남서쪽 비현의 250여 명의 공동체로 구역을 나누었다. 당시 의주에는 286명의 세례교인과 624



휘트모어(Norman C. Whittemore, 위대모, 1870-1952)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 이들중 3인 한석진(아랫줄 왼쪽 첫 번째), 서경조(아래쪽 왼쪽 두 번째), 양적 백(위쪽 오른쪽 첫 번째)이 의주 출신 혹은 의주에서 활동하였다.

명의 학습 교인을 포함하여 모두 1,156명의 신자가 있었다. 공예배를 하는 집단 수는 1886년 함경북도 최초의 교회인 의주 서교회를 비롯하여 14개에 이르게 된다.<sup>1)</sup>

당시 의주에서 열린 사경회의 열기를 그리스도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난달 7일부터 또 의주로 가서 사경하는데 공부하는 자 이백오십 명이 음식을 자비하고 왔는데 밤마다 모이는 자는 흑 삼백 명쯤 되고 주일마다 모이는 자는 사오백 명쯤 되

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몇 있으니 믿는 자의 혼인과 장사의 어떻게 할 것을 의론하고 또 그 자제들을 교육시킬 것까지 의론하고 또 돈을 거두어 전도할 사람을 택하여 내어 보내었으니 지금 전도인 세운 것이 둘이더라 내월에는 선천에서 또 사경을 할 터인데 미리 오기로 기약한 자가 오백 명가량이라 음식인즉 자비할 터이오 가르치는 목사는 평양 소 목사와 한 목사인데 두 분이 와서 위 목사를 도와준다더라”<sup>2)</sup>

평안북도지역은 기독교 수용의 관문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성경이 전달되었고,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평안북도지역은 해외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선교센터가 가장 늦게 들어간 곳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전에 주체적인 교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교사의 영향력이 적었고 한국인 지도자들과 선교사의 관계가 대등하게 형성되었다.<sup>3)</sup>

## 2. 장로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조선선교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조직이며 그 중 가장 큰 교세를 보인 지역은 평안도이다. 1907년 첫 노회인 독노회(獨老會)가 설립되어 자주적 조직을 갖추기까지 미국 북장로회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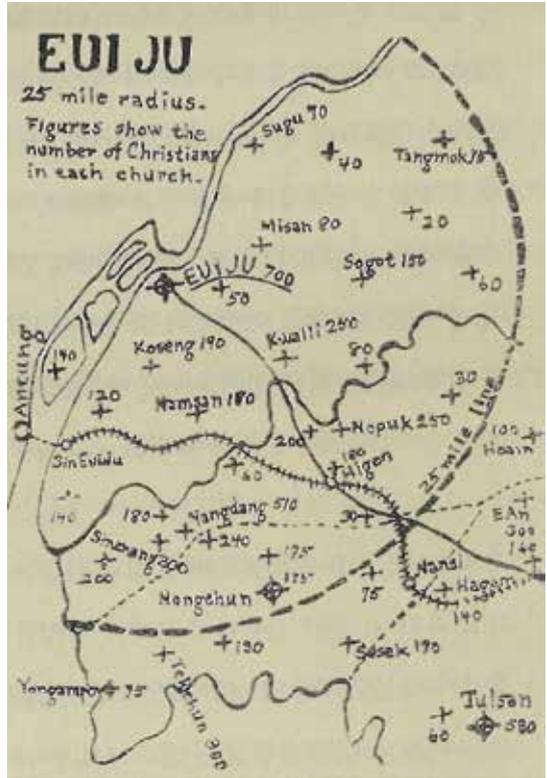
의주-신의주 일대는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만주 지역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전부터 선교사가 활동한 중국의 동

1) Annual Report of Syen Chun Station 1901-1902, 8-9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100년사”, pp. 152, 159에서 재인용.

2) 그리스도신문, 제6권 6호(1902. 2. 6), 41-42.를 앞의 글, 178에서 재인용.

3) 앞의 글, 185.

북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특히 신의주는 평북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점으로 인하여 한반도 북부, 평안도 선교기지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국경에 있었다는 점은 조선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 변방에 위치했다는 뜻이므로 조선선교 혹은 평안도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한반도 북부의 거점은 평양이, 평안도의 거점으로는 선천이 지정되었다. 독노회는 전국 각 지역에 7개의 대리회를 두었는데 평안도에는 2개의 대리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당시 평안도의 강력한 교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1907년 배출된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명 중 3명(한석진, 서경조, 양전백)이 의주 출신이었다는 데서도 우리는 조선 장로교에서 의주-신의주 지역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독노회는 1911년 총회로 변경되었고, 이때 창립된 평북노회는 분화를 거듭하여 1939년에 이르러서는 6개의 노회로 나뉘졌다. 그중 신의주와 의주의 교회는



의주-신의주 교회 및 교인 현황

1918년에 분립된 의산노회를 이루게 된다. 당시 한 선교사는 당시 의주-용천 지방의 교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남의주나 용천군의 언덕에 올라 사방을 쳐다보면 우리 앞에는 4-6개의 교회들이 눈에 들어온다. 용천의 양당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10마일을 원으로 그려보면 총3,000명의 신자를 가진 20개의 교회가 원안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의주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10,000명의 교인이 서명한 청원서를 선교부에 제시하였고 이후 의주에 외국인 거주지가 세워졌다.<sup>4)</sup> 의주, 신의주 지역의 교세는 더욱 성장하여 1913년에는 44개 교회로, 1939년에는 76교회, 26목사, 32,975 성도의 교회로 성장한다. 또한 의산노회는 1935년 봉천노회가 독립하기까지 봉천(현재의 심양)을 비롯한 서만주 일대와 1941년 안동노회가 분립하기까지 단동(丹東), 본계(本溪)등의 서간도지방을 관할하였다.<sup>5)</sup>

교계에는 일반적으로 평안도가 장로교의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 즉 평안남도의 교세가 컸던 것으로 알

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p.79.

5) “봉천”과 “안동”은 한국에도 같은 이름의 지명(관악구 봉천동, 경북 안동)이 있어 혼돈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봉천은 현재 심양(瀋陽)의 옛 이름이고, 안동은 현재 단동(丹東)의 옛 이름이다.



구세신문 1912년 2월 16일에 실린 각 지역 책임사관 명단. 신의주의 책임사관은 로드 정위였다.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 제공)



이성봉 목사는 신의주 동부교회에서 사임 후 전국적인 부흥사가 되었다.

려져있다. 물론 평양은 장대현교회 평양신학교, 숭실대학교를 비롯한 상징적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모여있었다. 그러나 교세에 있어서는 평북이 훨씬 우위를 보인다. 가령 1939년 평남에는 3개 노회에 69,824명의 신자가 있었으나 평북은 5개 노회에 97,422명의 신자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전국 장로교 성도 360,838명으로 보았을 때 평남은 19%, 평북은 26%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식민조선의 장로교에서 의주, 신의주, 용천, 선천으로 대표되는 평북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려준다.<sup>6)</sup>

### 3. 장로교 이외의 교단

성결교회는 1927년 평양에서 개척의 열매를 맺은 김제근전도사를 신의주에 파송하여 신의주성결교회를 개척하였고, 압록강 건너 안동(현재의 단동)까지 지교회를 개척하였다. 1934년 신의주동부성결교회가 개척된 이후 신의주성결교회는 1936년 교회 이름을 신의주서부성결교회로 변경한다. 1936년 4월 김하석 전도사의 후임으로 신의주동부교회에 부임한 이성봉 목사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벽돌 이층 벽돌 건물을 지었는데 면적은 220평에 이르렀다. 삼 층 다락까지 하면 최대 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2층은 예배당 아래층은 주일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당은 당시 성결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당이 되었다.<sup>7)</sup> 이성봉 목사는 신의주교회를 “내 목회 중에서 제일 부흥되고 제일 재미있게 일한 지역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자고 한마디만 하여도 교회에 잘 나오니 집사들이 전도에 재미를 붙이고 사역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신의주 동부교회의 교세는 교인이 장년 400여명, 유년 500여명 포함 1,000명 가량이 되었고 24구역에 구역장을 두고 남녀 직원 50명이었다. 이성봉 목사는 이들이 한데 뭉쳐 은혜로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쓰고 전도와 봉사가 초대교회와 같았다 라고 회상한다.<sup>8)</sup> 그러나 이성봉 목사가 신의주에서 목회에 열심을 내던 1936년-37년 성결교는 대분열을 겪게 되는데, 대분열의 풍랑

6) 박명수, “해방직후신의주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의 국가건설운동,” 『숭실사학』 제43호, (2019), p.258.

7) 이성봉,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성봉목사 자서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p. 55-57.

8) 이성봉,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성봉목사 자서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p. 55-57.



속에 이성봉 목사는 예배당을 헌당한 지 3일 만에 동부교회를 사임하고 신의주를 떠나게 된다. 이후 이성봉 목사는 전국 부흥사-일본 유학을 거쳐 만주 봉천(현재의 심양)에서 목회를 하던 중 만주의 무순에서 해방을 맞는다. 신의주의 성결교회들은 모두 1943년 일제에 의해 폐쇄된다. 이는 1943년 성결교 강제해산의 결과인데 유난히 강한 성결교의 재림사상이 일제의 미움을 샀고, 이에 따라 성결교가 일제의 탄압을 가장 먼저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의주서부교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재건되었다. 이성봉 목사는 이때 신의주를 방문한 후 1946년 3월 말, “장리초 목사와 6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이고 있음”을 전하였다. 한편 1947년 10월, 이용선 목사는 “신의주서부교회는 해방 후 예배당 문제로 크게 곤란을 당하여 오랫동안 주택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 건물을 찾고 새롭게 부흥하여 150여 명이 모였지만 장리초 목사의 전근으로 모이는 수가 100명 내외로 줄어들었지만, 신의주동부교회 최헌 목사가 겸임하고 백동수 전도부인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전하였다.<sup>9)</sup>

190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교단간 있었던 선교지 분할협정으로 감리회는 평안도에서는 태천, 희천, 영변, 박천군 일부만을 할당받았다. 이런 이유로 신의주 주변에는 감리교회의 흔적이 거의 없다. 다만 선교지 분할 정책이 느슨해진 1937년 장로교회를 출석하던 성도중 일부가 교회 개척을 추진하여 감리교 총리원 전도국에 목회자 파송을 요청하였고 총리원 전도국에서 홍현

신의주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참고: 평북노회사 편찬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사』(서울: 평북노회, 1997);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교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장형일, 『한국구세군사』(서울: 구세군대한본영, 2004); 유관지,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교회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9) 북한지역 성결교회 이야기(12), 신의주서부성결교회 (신의주성결교회), 한국성결신문 <http://www.kehcnews.co.kr> (검색일: 2023, 6, 11)



남신의주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평북노회사 편찬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사』(서울: 평북노회, 1997);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장형일, 『한국구세군사』(서울: 구세군대한본영, 2004); 유관지,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교회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설 목사를 파송하여 같은해 7월 4일 신의주 감리교회가 세워졌다.<sup>10)</sup>

신의주에는 구세군 교회도 있었다. 1909년 조선의 7개 지방 편성 시 평양과 더불어 이북 지방의 거점으로 편성되었고 로드(Herbert Arthur Lord, 1889-1972) 선교사가 책임자가 되었다. 로드선교사는 1912년 신의주 미륵동에 신의주영을 개척하였고 신의주영은 이후 희천동으로 옮겨 해방 전 일제의 박해로 폐쇄된다.<sup>11)</sup> 로드 사관은 평북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 조선 구세군 사관학교장, 말레이시아 사령관을 거쳐 영국으로 귀환했으나 해방 후 한국의 사령관으로 임명받아 재입국했다. 6.25 전쟁시 서울에 남아 구세군을 지키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랍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은퇴 후 1959년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허정 서울시장으로부터 6.25전쟁시 서울시민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감사장을 받는다.

#### 4. 단동의 교회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도시로 본래의 이름은 안동(安東)이었던 것이 1965년 단동(丹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단동의 교회들은 의산노회 소속으로 의주, 신의주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설립되고 발전하였다. 그 중 안동제일교회는 1914년 안동시 대화구에 설립되었는데 처음

10) 유관지,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교회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p. 49.

11) 장형일, 『한국구세군사』(서울: 구세군대한본영, 2004), pp. 47, 345.

이름은 안동현교회였다. 이 교회는 성장하여 노회를 개최할 규모로 성장하였는데, 1923년에 있었던 제 10회 의산노회가 안동제일교회에서 열렸다. 한경직 전도사는 1933년 신의주 제이교회에 부임하여 1934년 안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방후 중국의 공산화와 함께 안동제일교회는 지하화 하였으나 이후 개혁개방과 함께 교회가 1990년대 초반 복구되어 현재의 철도구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안동제일교회에서 1931년 안동중앙교회가 분립해 나갔다. 안동중앙교회는 육도구 공장 지대에 있는 일본인의 염색공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김세진 목사가 1933년부터 안동중앙교회를 담임했다. 김세진 목사는 1972년에 발간한 수상집 “꺼져가는 등불처럼”에, 평양신학교 재학 시절에 신의주제일교회 윤하영 목사의 권유로 안동중앙교회에서 처녀 목회를 시작했고, 부임하자마자 공장 주인이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만철 소유의 땅 200평을 불하받아 다시 교회를 지은 일 등을 기록한다. 당시 단동의 교회로는 안동제일교회, 안동제이교회, 안동제삼교회, 중앙교회, 육도구교회, 마자구교회, 안민교회, 삼도진교회, 봉황성교회가 있었다. 단동지역의 교회들은 1939년 까지는 의산노회에 속해있었다. 장로교는 1941년 제 30회 총회에서 안동노회를 분립시켰다. 당시 안동노회에 6인의 목사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동노회는 만주 기독교 총회에 흡수되었다.<sup>12)</sup>



안동제일교회에서 1933년에 있었던 목사안수식, (한경직 기념사업회 제공)

## 2.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

### 1. 사회민주당과 용암포 사건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해방 후 최초로 세워진 민주주의 정당이다. 당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평안북도는 기독교, 자작농, 인텔리의 교집합이 가장 강고한 곳이었다. 함석헌은 당시 평안북도와 신의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 마디로 그들은 신의주 내지 평북의 인텔리 정예분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면 대체로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신의주 용천일대는 땅이 평평하고 기름져 전국에서 우수한 쌀 고장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작농이 많은

12) 유관지, 『기도가 흐르는 강물 3380리』 (서울: 진리와자유, 2010). pp. 203, 204 참조.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일제 때 전국적으로 유학생이 다른 곳보다 엉뚱하게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곳도 여기였다. ....구한국 말년 이래 지식, 사상이 가장 진보된 곳이 이 지방이었다.”<sup>13)</sup>

평안북도의 기독교인들을 기반으로 1945년 9월초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1교회 목사 윤하영과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신의주와 용천군 일대는 한반도 북부에서 상당히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조선 내에서는 자작농과 해외 유학생이 많고 기독교가 매우 왕성한 곳이었다.<sup>14)</sup> 당시 한 일본인은 신의주가 종교도시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할 정도였다. 해방 직후 평안북도 야미지 지사는 신의주와 그 주변의 조선인 유력자 30인과 접촉하여 치안유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sup>15)</sup> 한경직에 따르면 그는 해방 직후 평안북도 도지사의 부탁으로 평안북도 치안에 관여하게 된다. 그는 신의주자치회의 부위원장직이 되어 청년들을 치안대로 편성하였다. 한경직과 윤하영이 신의주 자치회의를 개편하여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창당하였는데,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혁’을 강령으로 삼고 북한지역에서의 공산 세력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sup>16)</sup> 당수로는 평북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윤희 장로가 추대되었는데 그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자치위원회 내 대다수를 이루는 소련군에 포섭당한 위원들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인 통계조사 결과는 없지만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당 지부들은 대체로 평북지방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당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들은 기독교도만이 아닌 전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명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제거하여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으며,<sup>18)</sup> 이름을 바꾸던 때에 맞춰 대대적인 발족식을 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소련군의 방해 공작으로 발족식은 실패한다. 소련 군정의 탄압으로 결국 한경직과 윤하영은 10월 초 창당 1개월 만에 월남하게 된다. 이후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바뀐 사회민주당의 이름으로 재정비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원들로는 이기백 장로, 강만유 장로를 비롯한 20여 명이 참가하였고 노동회관 2층에 세를 내어 사무실을 차렸다. 위

13) 함석헌, “내가 겪은 신의주 학생사건”, 김홍수 편저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79.

14) 위의 글, p.89.

15) 김용벽,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89) p.201.

16) 한경직, “첫 8, 15회상”, 『만남』 (1973), p.8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p.388

18) 사와 마사히코와 한경직의 인터뷰, 사와 마사히코,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p.40

원들의 활약으로 각처에서 반공 연설들을 하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sup>19)</sup> 함경북도의 지방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부를 설립하며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창립자인 한경직과 윤하영이 창당 1개월 만에 월남한 점, 당수 이유필도 11월 월남 도중 사망한 점, 이유필과 관련된 저작, 증언들에 평북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나오나 사회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나 증언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결국 용암포 사건 당시에 사회민주당에는 한경직, 윤하영, 이유필이라는 역량있는 인물이 빠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민주당의 상태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을 추측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역량 있는 인물들이 빠지고 난 후 이기백, 강만유 등의 인물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둘째는 역량 있는 인물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 사회민주당이 조민당에 흡수되고 있었다는 추측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는 사와 마사히코의 “10월 한경직의 월남 후 사회민주당은 해체되어 후에 조민당에 흡수 된다”<sup>20)</sup>는 자료와 이철승의 “용암포사건의 배경에 북부지역의 조민당 견제 이유가 있고, 용암포사건의 발단이 된 학생 대표의 직전 연설이 조민당 용암포지부 선전부장의 연설이었다”<sup>21)</sup>는 내용이 있다. 양쪽의 주장과 자료는 모두 당시의 사회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필, 한경직, 윤하영의 사회민주당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회민주당(혹은 조선민주당에 흡수된 사회민주당 세력)의 확장 과정에서 소련군의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용암포사건이다.<sup>22)</sup> 11월 16일 사회민주당은 용암포지부 결성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행사장을 습격하여 위원장 장원봉 집사등 간부들을 폭행하여 홍석왕 장로가 즉사하고 교회 건물과 당 간부 주택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23)</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월 18일 용암포 제1교회 부설 구세초등학교 교정에서 시민대회가 열렸다.<sup>24)</sup> 연단에선 수산학교 4학년 최병학<sup>25)</sup>은 용암포 인민위원장 이종흡이 불법으

19) 장병욱, 『6.25 공산남침과 교회』, p.29

20) 사와 마사히코,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p.40

21) 이철승, “신민주 학생의거와 김일성의 등장,” 『통일한국』 (1989), p.91

22) 일반적으로 “용암포 사건”이라 함은 “1903년(광무 7) 러시아가 한국의 용암포를 강제점령하고 조차(租借)를 요구한 사건”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본문에서 설명하는 사건도 같은 이름을 쓴다.

2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p.389

24) 용암포 사건이 발생한 행사의 주최측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이견이 분분하다. 이철승(“신민주 학생의거와 김일성의 등장” 1989), 정국로(“학생건국운동사” 1986)는 민족진영의 청년조직체인 ‘고려청년동맹’ 주최로 열린 독립촉성대회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와다 하루끼(분단전후의 현대사, 1983)는 시민위원회의 주제로 열렸다고 말한다. , 이찬영(북한기독교 100장면, 2000), 고태우(북한사 100장면, 1996)은 북한당국이 연농민대회였다고 말한다. 주민영(신의주반소·반공 학생운동, 2001, 성신여대 석사논문)은 용암포사건 참가자 이동준(당시 동중4년)의 말에 따라 소련군의 압착이인 이용흡 일당이 주최한 행사였다고 기록한다.

25) 연사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견해가 다르다. 정국로와 이철승, 류길재는 신의주동중생 이철일이라고 하며, 고태우, 주민영은 수산학교 최병학이라고 한다. 2001년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는 당시 ‘최병학’이 연사였다고 주장했다.

로 접수하여 사용하던 수산학교 학교건물의 반환을 주장하였으며, 이종흡 일당의 매국매족 행위를 신랄하게 폭로 비판하였다. 이어 “공산당은 당원 훈련소로 쓰고 있는 수산학교를 내놓으라!, 소련군의 앞잡이 이용흡과 그의 주구들은 물러가라!”라고 외치자 참가자들도 이에 호응하여 행사는 시위로 변하였다. 그러나 19일 새벽 이용흡 일당은 동양 경금속의 노동자들과 불이 농장의 농민등 2,500여명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기숙사와 민가를 뒤져 학생들을 찾아내어 폭력을 휘둘러 용암포는 아수라장이 된다. 주민영, 이철승은 홍석왕 장로의 살해가 18일 학생운동 당시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부 문헌에는 11월 16일 사회민주당 용암포지부 결성대회 사건이 용암포 사건과 뒤섞여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오해로 보인다.

## 2. 신의주 학생운동

용암포는 신의주의 이웃 도시였으므로 용암포에서 신의주로 통학하는 학생, 용암포 출신으로 신의주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용암포에서 발생한 사건은 발생 직후 신의주에 전해졌으며 소식을 듣고 분노한 학생들은 신의주 평북학생자치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다. 11월 22일 학생조사단의 신의주 방문시 이용흡 세력은 책임을 민족진영 인사들과 학생들에게 돌렸다. 또한 이용흡은 용암포 학생소요사건의 사죄 차 평북학생자치대가 방문한 것으로 여론을 조작하였다. 학생들은 현지 주둔 소련군 책임자를 만나 항의와 석방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다. 당시 조사단 중 한 사람이었던 김인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암포에 당도하자 포위당했어요,.... 책임이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치데요.... 학생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도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북학생회 대표들이 내려와서 간절히 사과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여론이 확 돌아갔다....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즉시 학생 전체 회의를 열어 어떤 결의를 한다.”<sup>26)</sup> 조사단으로부터 상황을 들은 학생자치대 대표들은 다음 날 정오를 기해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22일에 회의를 시작하여 23일 오전 구체적 계획을 세운 학생자치대 대표들은 곧장 각자의 학교로 흩어져 결의내용을 전달한다. 그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7)</sup>

“현재 평북 공산당은 평북도민의 여론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군사력을

26) 이현희, 『독립·통일운동사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165-170.

27) 함석현 “내가 겪은 신의주 학생사건”, 김흥수 편저, 『해방후 북한 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 373.

악용하여 약탈·강권 남용·불법·기만 등 갖은 학정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평북도 인민위원회 보안부는 이와 같은 폭정의 본거지인 평북 공산당 본부의 지령을 받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제한 학원의 간섭과 적색 제국 주의 사상의 침투를 감행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학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총결기하여 공산당의 통치를 결사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바이다. 공산당을 몰아내자. 피난민의 대우를 개선하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소련군은 물러가라.”<sup>28)</sup>

이들은 실질적 시위 계획을 세워 11월 23일 오후 2시를 기해 시위를 벌였는데 가담자는 3,500명에 달했다. 학생들은 인민위원회, 소련공산당 본부 등을 습격하였으나 소련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무력화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이 사건으로 24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35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중 주모자 200여 명은 시베리아로 유배된다.<sup>29)</sup>

신익주 학생사건에 대한 종교 관련 통계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신익주의 기독교적 분위기, 당시의 상황이 신익주에서 태동한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확장 과정과 관련 있다는 점, 용암포 사건의 발발 장소와 관련 희생자의 기독교 연관성 등을 볼 때 신익주 사건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확대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김일성은 신익주를 11월 26일 방문하여 사태 수습을 위해 “상공인, 의사, 기독교인들과의 담화”를 갖고 다음 날 “신익주시 군중대회”를 열어 신익주 사태의 책임이 공산당과 정권 기관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에게 있으며, 그 불순분자들과 공산당을 구분해야 한다. 새민주조선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이후로 한웅을 숙청하고 다른 간부들도 ‘방조’혐의로 처벌하는 등 신익주의 민심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sup>30)</sup> 그러나 김일성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익주 사건은 조만식과 김일성의 합작, 기독교인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의 합작을 양측 모두가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동아일보 1945년 12월 8일자 2면에 보도된 신익주 학생운동 관련 기사. 신익주 학생운동에서 희생된 학생의 유골을 안고 서울로 내려온 부모의 소식이 실렸다.

28) 고태우, 『북한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1996), p.33.

29) 위의 글, p.35.

30)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pp.94-95.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31)</sup>

### 3. 해방 - 6.25 시기, 의주-신의주의 순교자들

해방 직후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의주의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 재건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없었다. 당시 노회록 등 중요한 문헌들도 상당 부분 유실되었다. 해방으로부터 6.25까지 의주-신의주 출신이거나 의주-신의주에서 사역을 하던 중 공산당에 의해 살해, 순교당한 이들의 명단이 일부 노회록 등에 정리되었다.

의주-신의주 출신 순교자는 장로교 지도자로는 김응락 장로, 노명갑 집사, 백봉렴 전도사, 백인숙 전도사, 백홍준 장로, 이병규 집사, 이제규 목사, 한경희 목사가 있으며, 의주-신의주 지역에서 순교한 이들로는 원성덕 목사(의주 영산교회), 장규명 목사(신의주 형무소)<sup>32)</sup> 성결교 지도자로는 신의주 동부교회의 첫 담임 교역자인 한성달 목사가 있다. 김상철 목사는 신의주에 남아있던 중 전쟁 중에 목사했다.<sup>33)</sup>

## 3.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 1. 신의주 출신 아브라함(가명) 목사 이야기

탈북민 출신 목회자인 김○○은 북한에서 본인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친 어느 한 교인에 대해 소개한다. 아브라함은 1959년 북한정권의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으로 국경지역에 강제 이주되었다. 그곳에는 신의주교회를 비롯하여 원산 평양 등 전국에서 기독교 탄압정책으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살았다. 그중에 야곱(가명)의 가족은 삼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으며 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사를 이야기 해 주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해방 전에 신의주 고무공장을 운영하며 수입의 전부를 교회 세우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과 서원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제강점기 신의주 제일교회

31) 와다 하루키, 서동만 역 『한국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p.282.

32) 서정민 외, 『감사로 돌아보고 기대로 바라본다-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100년사』. (서울: 평북노회 100주년 기념사업회, 2014), p.344.

33) 유관지박사의 북한 옛교회들의 이야기, 33 신의주 동부 성결교회.  
[http://21tv.co.kr/bbs/zboard.php?id=column17&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54\(검색일: 2023.6.10\)](http://21tv.co.kr/bbs/zboard.php?id=column17&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54(검색일: 2023.6.10))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교회의 개척 장로가 되었으며 계속하여 신의주 제이교회, 제삼교회, 제사교회, 제오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했다. 신의주 제육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담임목사 리기선의 임명과정에서도 관여하였다. 1954년 북한정권의 교회 탄압으로 신의주교회들이 폐쇄되고 리기선 목사가 일부 교인들과 남한으로 떠난 후 아브라함 장로는 일부 교인들과 평양으로 이동하여 연락을 가질 수 없었다. 리기선 목사가 남한으로 떠난 후 아브라함 장로의 아들 이삭(가명)목사가 신의주 제육교회 교인들을 맞아 목양하며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했다. 해방 전에 이삭목사는 신의주에서 선교사와 함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한다.

이삭(가명) 목사는 신의주집에서 교인들을 목양하며 마을마다 몇 개의 가정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니며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나 기독교인 박해가 심해져 1954년 이삭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평양으로 이사하여 평양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1954년 아브라함 장로는 평양 송어리 장로교회에서 권○○장로와 함께 평양지역에서 폐쇄된 교회의 교인들을 몇 개의 집에 나누고 예배인도를 했다. 당시 평양 송어리 장로교회 권○○장로나 폐쇄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여 이삭목사가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몇 개의 가정예배처소를 맡아 돌보았다고 한다. 이삭 목사는 주일마다 아버지를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가정예배처소를 돌며 매일 예배를 7-8회씩 드렸다고 한다. 그때 가정교회는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신자들이 넘쳤다고 한다.

1956년부터 59년 사이에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추방이 있었는데 그때 송어리 장로교회 권○○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이 함경북도 국경지역으로 추방되었다. 1958년 평양교회 박해로 아브라함 장로가 순교하고 이삭목사는 1958년 교인들을 데리고 다시 신의주로 와서 지하교회를 운영했으나 바로 체포되어 교인들과 함께 1959년 함경북도 국경지역으로 추방되었다. 이삭목사는 추방지에서 교단에 관계없이 모여든 교인들을 지역가정에 나누고 지하교회형식으로 목양하며 목사직분을 숨기고 선생의 직분으로 성경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을 지도 했다. 그때 이삭목사는 평양에서 추방된 B장로와 장로교 교인들을 만났으며 목사들도 다수 만나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관계로 이삭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목양했다고 한다.

1978년 비밀교회를 관리하던 이삭목사를 북한당국이 검거하고 예배처소를 알아내려고 고문했지만 그는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고 순교를 택했다. 이삭목사가 고문으로 순교하자 교인들은 가정예배에 모이지 않았고 북한당국은 이삭목사의 집을 수색했다. 당시 이삭목사의 집에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이 가득했으며 보안



일제강점기 말 신의주 시내, (하쿠 목사  
사 제공)

원들은 가족에게 서적들을 집 앞마당에 모아놓게 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 버렸다. 그때 이삭목사의 맏아들 야곱은 보안원들이 주는 책을 안고 밖으로 나가다가 부엌 마루에서 발등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로 차서 부엌에 떨어뜨렸다. 보안원들이 성경과 기독교서적들을 모두 태우고 확인까지 하고 간 다음 부엌에 떨어진 책을 보니 성경이었다. 야곱은 90% 이상 세로줄로 된 한자 성경의 표지를 떼고 그 책을 따로 보관하여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 한자에 능통한 그는 토씨만 한글로 된 한자 성경을 줄줄 읽었고 거의 외우고 있었다. 김○○ 목사는 1997년 야곱과 함께 표지가 없는 성경을 보았고 그와 함께 창세기과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전한다.

김○○ 목사는 북한에서 알고 지내던 백○○자매에 대해 증언한다. 백○○자매는 신의주 제1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목사와 결혼하고 사모가 되었다. 해방 후 교회가 박해를 받자 교회의 중진을 맡고 있던 일가친척들이 대부분은 남한으로 가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북에 남았다. 북한정권의 핍박으로 목사인 남편을 잃었지만 백○○자매는 함께하던 교인들을 잘 돌보며 자녀들을 키웠으며 97세에 사망했다.<sup>34)</sup>

34) 김광석, “남북한 주민의 통일역시 통합을 도모하는 북한선교정책 연구” (장신대 석사학위논문, 2016), pp. 55-58, 2017년 2월 필자와 김광석의 인터뷰.

## 2. 신의주 출신 H목사 이야기

H목사는 의과대학 출신으로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목회에 소명을 받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영락교회를 개척한故한경직 목사가 신의주에서 목회할 당시 한경직 목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H목사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H목사는 신의주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 이후로 H목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10년 복역 끝에 결국 옥사했다. 당시 H목사 혼자 신의주에서 사역을 하고 가족들은 평양에 있었지만, 결국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들은 함경북도로 추방을 당했다. H목사의 아내는 추방된 곳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까운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매주 가정예배를 이어갔다. H목사의 딸인 J는 추방된 곳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을 전도하였고 이후로 고난의 행군시기 중국의 모 교회와 연결되어 중국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도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중 J의 자녀 중 두명이 전도 활동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H목사의 손녀는 탈북 후 귀국하여 한국교회에 할아버지의 소식을 알렸다.<sup>35)</sup>

## 3. 신의주에서 활동한 이기백 장로

이기백 장로는 신의주 동부교회(성결교)의 장로였다. 신의주 동부교회는 매년 교인들이 증가했지만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43년 12월 해산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장로교회인 신의주 제2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신의주 동부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으나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다시 여러 모양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이기백 장로는 평양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강랑욱이 추진하는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측에서 이기백 장로를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기독교도연맹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일로 정권의 미움을 사서 수시로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어 평양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1945년 말 황해도로 내려와 피신 겸 요양을 하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故 한경직 목사가 그를 남쪽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는 가족들이 위험하므로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갈 수 없다고 거절하고 한경직 목사가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기백 장로의 가정은 평양에 머물던 중 1959년 9월쯤에 함경북도 온성지역으로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이어갔다. 고난의 행군시기 그의 딸이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35)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pp. 47-53.

의 행적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한국교회사에서 故이기백 장로는 공산당에 체포되어 1951년도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그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나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온성으로 추방당한 후, 1993년까지 살다가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이기백 장로의 장례식 때는 수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를 하며 '며칠 후 며칠 후 요 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불렀다고 한다.<sup>36)</sup>

#### 4. 신의주에서 일어난 기독교 관련 사건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연간으로 발간하는 북한종교자유백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백서에 소개된 내용 중 신의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2002년경 있었던 꽃제비 그룹 처벌 사건과 2005년 신의주에서 성경이 발각되어 처형된 사건이 있다.

"도강했다가 신의주 보위부에서 2002년 6월 초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다 남자 아이들이었고,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17살, 그리고 대체로 13~4살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 중국으로 데려간 애들이고, 나중에 중국 기독교 교회에서 애들을 길러주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곱명 아이들이 어떻게 잡혀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애들은 보위부 구류장에 와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17살 애는 계호원들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나머지 어린애들은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들 7명은 한방에 정치범으로 모아서 가둬졌습니다. 그 애들은 보위부에서 보름 동안을 있다가 정치범으로 7월 10일쯤에 풍차를 타고 실려 갔습니다. 그때 풍차에 실어갈 때 온 군대 사람들이 정치범들을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계호원들도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지는 아무도 몰랐고, 정치범으로 간다고만 알았습니다."<sup>37)</sup>

"아주머니(당시 40대, 여, 평북 거주) 한 분이 성경책을 집에 놔뒀다가 발각이 돼서 그 집(피해자 집)에서 끌려 나가고, 그 집은 군관이 살려고 들어오고 아주머니는 신의주시 연산동이라고 농장 탈곡장에서 공개 총살하는 거예요. 공장 기업소에서 총살하는데 가도록 해서 구경 갔는데 왜 총살이냐고? 물으니 까 말하는 얘기가 성경을 보관했다고 말했어요. 머리, 심장, 다리 있는데 묶고

36)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pp. 74-78.

37)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pp. 163-164.

2005년 9월 달에 총살했어요.<sup>38)</sup>

## 5. 신의주 제1교회 출신 성도와 신의주로 돌아간 청년

강석진 선교사는 1992년 한경직 목사로부터 신의주의 한 성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의주 제2교회의 성도를 수소문하던 중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신의주 제1교회 집사 출신 성도의 소식을 듣는다. 조선족 사업가를 만난 신의주의 노인은 자신과 온 가족들과 주변의 그 당시 같은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어느 노령의 성도는 주일이면 그들이 섬겼던 교회의 터전을 돌면서 침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그 노인은 농작에서 보따리를 꺼내어 50여 년 전의 신의주 제1교회 사진과 주보 등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장차 통일되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는 이북이 공산화가 되면서 남으로 내려간 신의주 성도들이 통일되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지 그 계획을 알아봐 달라고 조선족 사업가에게 부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증거를 보내 달라고 조선족 사역자에게 부탁 하였다고 전한다.<sup>39)</sup> 강석진은 또한 1997년 만난 신의주 성도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미 기독교 신앙인이었으며, 북한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된 일사각오의 복음의 전사였다. 그는 1960년대에 태어나 해방 전의 기독교인들과는 단절된 세대였고, 어느 방편으로도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이 청년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에 한국의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성경과 신학에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챙겨서 압록강을 무사히 도강하여 신의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철산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sup>40)</sup>

## 나가는 말

신의주는 대륙과 조선 간의 관문이자 평안북도의 중심도시이다. 이응찬, 서상륜, 백흥준 등 의주 출신 상인들이 봉천(奉天, 현재의 요녕성 심양瀋陽)지역에서 존

38)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169.

39) 2023년 7월, 강석진과의 전화인터뷰

40) 강석진,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교회사』, (서울: 쿰란출판사, 2020), pp. 250-258.

로스(John Ross, 1942-1915)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번역을 도와 1982년 최초의 조선어 성경인 누가복음서가 출간되었다. 휘트모어(Norman C. Whittemore, 위대모, 1870-1952) 선교사를 비롯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7인 중 3인 한석진, 서경조, 양전백이 의주 출신 혹은 의주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신의주가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를 역설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말 성결교의 이성봉, 장로교의 윤하영, 한경직 등 성결교와 장로교의 훌륭한 목사들이 땀흘려 사역하여 귀한 열매를 거둔 곳이 바로 신의주이다.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신의주에서 신의주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주도의 저항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곳이다. 신의주 바로 옆 용암포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홍석왕 장로는 해방 후 공산주의자에 의한 최초의 순교사례로 기억되고 있으며, 신의주 학생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이국땅에서 삶을 보냈다. 공산정권의 핍박이 심해지며 많은 성도들이 월남하였고, 남은 성도들 중 대다수가 함경도 등 오지로 추방되었다. 공산화에 이은 성도들의 월남과 추방은 신의주의 신앙공동체에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주를 비롯하여 평안북도에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한동안 지속된 국경의 붕괴와 그로인한 대규모 월경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중국을 경험하였고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러 경로로 전해지고 있다.

신의주(의주)의 교회를 시대순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한말 조선에 복음이 전래된 곳, 일제강점기 각 교단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들의 사역을 통해 큰 열매를 맺은 곳, 공산정권 초기 가장 강력하게 공산정권에 반대했던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사들은 신의주(의주)의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에 물려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들이다. 

# 신의주의 이모저모

## 신의주의 음식

남한에서 신의주의 음식이라 하면 “신의주 찹쌀순대”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정작 신의주의 전통 요리에 찹쌀순대는 없다. 함경도와 평안도 중국의 연변지방 조선족들이 먹는 순대는 당면이 전혀 안 들어가고 찹쌀만 꼭 들어차 있는데 이것은 평안도-함경도-간도식의 “북방 순대”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신의주 찹쌀순대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의주가 식민조선에서는 그나마 돼지고기가 흔한 도시였다는 점이다. 평안북도 농촌에는 대두(大豆, 콩) 생산이 많았고 신의주에는 평안북도 각지에서 모인 콩으로 기름을 짜는 콩기름 공장이 많이 있었다. 콩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 생산도 많았는데 이는 주로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었다. 축산업의 성패는 사료의 조달에 달렸는데, 넘쳐나는 대두박으로 인해 신의주 외곽의 농촌에는 돼지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순대의 주재료가 돼지 창자인 것과 신의주가 연안의 쌀이 모이는 곳이었음을 생각할 때 신의주-찹쌀순대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평북 출신으로 해방 전후 신의주에 거주한 백석의 시에는 국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석의 시에 나오는 국수는 ‘털도 안 뽑은 도야지고기」「서행시초」, ‘수육 삶는 냄새 찢쩍 끓는 샷방을 좋아한다」「국수」 등 돼지고기와 돼지 육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

평안북도는 연안 지방의 쌀과 함께 어류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다. 압록강 하구의 용



남한에서 유명한 신의주 찹쌀순대, 실제로 신의주에서 찹쌀순대가 유명했다는 기록은 없다. (사진 출처: 신의주 찹쌀순대 홈페이지)

암포에는 여름이면 평안북도 서해와 발해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용암포에서 신의주까지는 뱃길로 18km의 거리로 신의주는 서해의 수산물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관문이기도 했다.

이는 신의주지방의 풍성한 식문화로 이어진다. 신의주의 음식은 생선, 새우젓, 콩, 밀 등을 원료로 한 음식이 많았고 특히 북한음식의 대표 격인 왕만두가 유명하다. 이외에도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평북의 음식으로는 풋완두죽, 헹베리고추장찜, 메기장조림, 가막조개젓 등이 유명하다.

### 참고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 열린책들, 2023)

한식진흥원, 『숨겨진 맛, 북한전통음식』 (서울: 한식진흥원, 2013)

## 신의주 배경의 문학작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끝에 헤메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깬,  
한방에 들어서 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사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전문 -



백석

백석은 최근 남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인이다. 그는 월북 시인으로 규정돼 출판금지 대상이 되었다가, 1988년 남북·월북 작가 해금 조치가 되며 문학사에 복귀했다. 조각 같은 외모에 흰칠한 키, 조선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영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천재, 무엇보다 그의 서정시는 일제 말 식민조선의 각계를 흔들어 놓았다. 그는 분단 이후 북한에 남는 길을 택했고, 번역 외에 제대로 된 작품을 내지 못하다 협동농장으로 쫓겨나 생을 마친다.

그는 1940년 이후 안동(현재의 단동), 신경(현재의 장춘) 등 만주에서 지내던 중 1944년 겨울(1944년 말 혹은 1945년 초)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줄곧 신의주에 머물다가 해방 직후에 평양으로 가서 평남 임시인민정치 위원회의 통역, 조만식의 통역비서로 활동했다. 그리고 1947년경부터는 러시아 문학작품의 번역에 전념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그는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북한혁명’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의 매체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발표했다. 이 작품에서 백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다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후 백석은 1959년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협동조합으로 내려가 축산반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 삼수군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시 창작을 지도하였으나 1962년 10월 북한 문화계에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창작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6년 삼수군 관평리에서 사망하였다. 여기서 삼수군은 “삼수갑산”의 삼수이다. 삼수에서 백석의 삶을 그린 소설로 김연수의 『일곱 해의 마지막』이 있다.

##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2163>)

오성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해방 전후 백석의 삶, 2021, 배달말.

고운기, “온몸으로 읽는 이 시대의 명사”

## 신민주 출신의 유명인물

신민주 출신 혹은 신민주를 무대로 활동한 인물로는 태항산 조선의용대의 최봉원(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기독교에서는 사회운동가였던 함석헌, 윤하영 목사(신민주제일교회), 한경직 목사(신민주제일교회)가 있다. 4전 5기 신화의 주인공 권수 선수 홍수환 선수도 신민주 출신이다. 홍수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의 가족은 해방 전 신민주 제2 교회에 다녔고 홍수환의 조부는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민지 조선의 마라톤 영웅 손기정은 1912년 8월 29일 신민주 남민포동에서 잡화상점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9살 나이인 1931년에 조선 육상선수권 1500m에서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후 육상의 명문 서울의 양정고보(고등학교)로부터 입학 권유를 받아 1932년 20살 나이에 입학했는데, 체육교사 김수기 선생, 지리교사 김교신 선생이 계셔서 달릴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 참가를 위해 경성에서 출발하여 베를린에 이르는 여정을 “백림원정기”라는 이름으로 남겼는데 이중 “그날 밤 열한 시 가로수에 이른 여름의 그믐 달빛이 어리는 것을 보면서 내 고향 신민주에 당도했다. 기차 관



손기정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제거하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보도

계상 나는 그냥 안동현까지 가서 차에 내리니 거기서 정거장까지 전승으로 나온 가족과 동무들을 만나고 그 이튿날 아침 봉천에서 하차하여 시가와 북릉을 구경한 뒤 다시 하얼빈으로 향하였다.”(“삼천리”, 1937년 5월호) 라는 대목에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니 브라더스’로 유명한 재즈보컬 1세대 김준씨도 1940년 1월 평안북도 신민주에서 태어나 1951년 1.4. 후퇴 때 월남한 월남 1.5세대이고, 한국 영화녹음의 아버지 이경순도 1921년 5월 17일 평북 벽동에서 태어나 신민주에서 춘일악기점을 운영하며 20대를 보냈다. 두 사람 모두 평북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교회를 통해 음악을 접하였으며 북한이 공산화된 후 월남해 한국의 음악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례이다.

### 참고

이찬우, “새롭고 의로운 땅”으로 다시 서는 신민주를 바라보다(중),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556>, 검색일: 2023년 6월 1일)  
방민호, 이지은, 『경의선 따라 산문여행, 경성에서 신민주까지』 (서울: 예음, 2023)  
손기정, “백림원정기,” 『삼천리』 1937년 5월호

# 신익주의 사람 사는 이야기

**Q** 자매님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저는 XX지역에서 나서 자랐고 일자리 때문에 졸업하고 19세에 신의주로 갔어요. 19세부터 29세까지 신의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희 외가는 용천분들이세요. 용천에도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이예요. 북한에 “첫 기슭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신의주 학생운동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거기 보면 송 장로, 누구 집사 해서 이렇게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거 보면서 저 드라마 내용에 기독교 사람들 저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용천이 기독교인도 많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용천쌀, 용천-염주쌀 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유명하거든요. 예전에 일정 때 천황한테도 용천쌀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용천 사람들은 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북한에서 신앙생활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에 대해서 늘 호의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해방 전에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신의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네를 도시 사람으로 생각하죠. 원래는 도시마다 이동할 때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특히 국경 지역이래서 더 철저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Q** 신의주가 북신의주, 남신의주, 랍원 세 구역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특징이 있나요?

**A** 북신의주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북신의주를 신의주라고 부릅니다. 남신의주는 자체가 역도 작고 지역도 작아요.

**Q** 신의주에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 있나요?

**A** 압록강 유역에 공원이 있어요. 다리 밑 관문동 쪽에, 한국처럼 바람 쐬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는 하는데, 결혼식을 하거나, 명절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 유람선도 다녀요. 랜드마크라면 채하시장이죠! 채하시장은 없는 거 빼고 다



평안북도의 대표적 관광지 통군정, 단동에서 당일치기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은 대부분 통군정을 가는 길에 신의주를 잠시 들른다.

있어요. 또 김일성광장이나 그런 광장에 나와서 머리 식히죠.

신의주에서 의주 쪽으로 올라가면 정문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일성 특각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서 놀기도 하죠. 특히 5.1절 노동절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휴식을 보장해 줘요. 있는 사람들은 단오날에도 당연히 즐기는데, 없는 사람들도 노동절에는 없는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염소한 마리 한다거나 돼지불고기를 한다거나 한 번씩 먹고 오죠. 노동절은 그래도 관례처럼 하루 잘 먹죠. 단오날은 있는 사람들이나 다니죠.

### Q 중국인 관광객들은 있나요?

A 중국인들 많죠. 그런데 관광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의주 통군정 같은 데 가는 길에 들러서 밥이나 먹고 가죠. 신의주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 Q 중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대화라도 하나요?

A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움직이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딱 정해진 곳으로만 움직여요. 식당가면 단체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바

로 버스 타고 움직이고, 통군정 같은 데 가도 가이드가 안내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움직여요.

### Q 혹시 다른 나라 관광객도 보신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중국인만 왔어요. 근데 신의주에 중국인이 많이 다녀서 중국인은 거의 외국인이라고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 Q 중국 사람들이 신의주에 오기는 많이 오는데 신의주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건 어떤가요? 다른 지역보다 중국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죠?

A 무역일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의주 사람들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결제받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거의 몰래 다녀요. 국가에서 워크(수출입허가권) 받아서 정식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중국에 불일이 있고 어떨 때는 중국 측 대방이 대접한다고 초대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정식으로 결제받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경비대한테 돈 좀 찢러주고 몰래 단동 가서 불일 보고, 노래방도 가고 백화점도 갔다 2-3일 있다 오는 거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문제가 안돼요. 돈이 통행증이에요.



중국에서 바라본 신의주

### Q 신의주 사람들이 경쟁심을 느끼는 도시가 있나요?

A 신의주 사람들은 기질이 무뎠던 편이에요,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랑은 좀 안 좋아하기도 해요. 함경도 사람들이 드세고 악착같아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상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거지 실제로 지역 감정을 느끼는 건 없어요. 특히 청진 사람들에 대해 경쟁심 비슷한 게 있는 게, 둘 다 국경도시이

고 항구도시이고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 같아요.

**Q** 신의주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나요?

**A** 인민학교(소학교)부터 1중학교가 있죠. 평북 1중학교는 신의주에 있죠. 거기는 토대나 뺨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애들이 가요. 토대가 좋은 애들은 나중에 김일성대학에 가려고 하고, 토대는 없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김책공대 같은 데 가려고 해요. 1중학교 나온 애들이 김책공대 같은 데 목표 공부하죠. 아이들 사이에 겉보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북한은 전국이 교복이 똑같아요.

**Q** 신의주 사람들 직업적 특징이 있나요? 가령 무역 종사자들이 많다거나요.

**A** 해외무역 하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좀 있죠! 근데 신의주는 화장품, 신발이 유명하잖아요. 신의주는 공업도시예요. 신의주의 거의 모든 여자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방직공장 배치받죠, 낙원에는 기계공장이 있고요 특별한 뭐가 있다가나 뺨이 있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Q** 신의주가 바닷가 도시인데 혹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나요?

**A** 없어요. 어촌은 용천, 선천, 광산 즈음 내려가야 있죠.

**Q** 신의주에 화교가 많다고 하는데 어디에 많이 있나요?

**A** 화교 많죠. 남중동, 채하동 주변에 몰려 살아요. 화교들 중에 중국말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디서 노래를 부르라 그래도 중국노

래는 모르고 한국노래나 북한노래 불러요.

**Q** 신의주에 사실 때 화교들을 자주 봤겠네요?

**A** 신의주에는 화교학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다르니까 북한 애들이랑 구분이 되죠. 그래도 화교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요. 화교는 중국 사람이니까 북한 주민보다는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옷을 입거나, 악세사리를 하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하는 건 더 자유롭죠. 그리고 화교들은 중국을 다니면서 남한 드라마 같은 걸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옷도 화교들은 단둥에서 남한 물건을 많이 가져와요. 근데 옛날 같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중국으로 이사갔어요. 그냥 중국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한국에 여행도 와요. 아직 신의주에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중국으로 갔어요. 그 화교들이 중국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의주 외곽 압록강가에서 빨래하는 북한 주민들

**Q** 예전에 상류 지역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 아이들이 같이 놀기도 했는데 신의주에도 그런 동네가 있나요?

**A** 신의주는 강이 넓어요. 강에 나오면 겨우 보

이는 정도죠. 근데 밀수할 때는 하단 거쳐서 수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쪽은 강폭이 좁으니깐 좀 더 가까이 보이기는 하죠. 하단도 밀수 성지예요, 상단, 하단이 다 그래요. 거기도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놀 정도 거리는 아니에요.

**Q** 예전에 저도 단동에 가보면 밤에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더라고요.

**A** 네 맞아요. 저도 단동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동 사람들한테 “단동에 웬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냐, 뭐가 볼 게 있다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너네들 구경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슬프더라고요.

**Q** 예전에 재일교포들이 귀국했을 때 신의주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A** 맞아요. 북한에서는 재일교포를 짜포라고 하죠. 재일교포는 남신의주에 많아요. 백사동에 많이 살아요. 정권에서 배치를 그쪽에다 해서 많겠죠!

**Q** 청진도 화교도 많고 영사관, 화교학교도 있고 재일교포도 많은데 신의주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네요.

**A** 청진이 재일교포는 더 많죠!

**Q** 재일교포 삶은 어떤가요?

**A** 그 친구들은 예전에 풍요로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일본에서 옷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쁜 일본제 원피스 그런 것도 입고 그러면 엄청

나게 부러워하죠.

근데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또 재일교포 2세대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해 봐서 그런지 장사하고 부를 일군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북한사람들은 배급이 나 받고 장사 별로 안 하던 시절에도 재일교포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재일교포 2세대들은 부모들이 가져온 돈 흥청망청 쓰고, 마약도 하고 망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Q** 남신의주는 80년대 들어서나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신의주랑 남신의주랑은 차이가 좀 있나요?

**A** 옛날에는 남신의주에 산다면 좀 촌에 산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신도시 같은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신의주는 공장도 많지 않고 뒤에 산도 있어요. 신의주는 화학공장, 방직공장 있죠. 매년도 엄청나고 하수처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서 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남신의주로 이사 간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빈부격차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편법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남신의주에 있다’ 그런 말도 해요. 남신의주에 아파트들도 많이 생겼어요.

**Q** 그런데 남신의주가 역도 있고 옛날에 교회들도 많이 있었던 걸 보면 옛날에도 완전히 시골은 아니었나 봐요?

**A** 그럼요, 남신의주가 신의주랑은 비교도 안 됐지만 의주보다는 원래 도시 같았죠. 완전 시골이었던 건 아니에요.

**Q** 제가 궁금한 게 장로교 신의주제일교회, 제이교회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신의주에 있었을 거 같은데 둘 다 남신의주에 있었더라고요.

**A** 그게 아마 용천이랑 가까워서 그럴 거예요. 용천은 예전부터 기독교가 강했잖아요. 용천에 무슨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던데, 북한에 “첫 기슭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신의주 쪽에 교회들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의 엄마가 교회다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 얘기 들으면 예전에 용천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기슭에서”라는 드라마 보면서 할머니가 저거 용천에서 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왜 갑자기 그런 얘기하나...’ 했죠.

**Q** 신의주에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A** 신의주 사람 중에는 화교 누구더라 아주 유명한 화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양빈은 아니구요.

**Q** 신의주 출신 유명한 사람 중에 손기정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A** 아 그건 학교에서 배웠어요. 신의주 출신 마라톤선수 손기정. 그런데 신의주에 왜 노력 영웅이나 훌륭한 위인들이 안 나왔냐면요, 신의주 사람들이 사상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요. 노랑물이 많이 들어서... 그 사회에서 죽지 않고 살라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 척은 하죠. 그래서 황해도 사람들은 신의주 와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반동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열려 있는 거죠.



북한의 화장품 광고

**Q** 예전에 한국에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항구도시고 일본이랑 가까워서 패션은 서울보다 앞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신의주도 그런 면이 있나요?

**A** 신의주 사람들도 평양보다 옷을 잘 입어요.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도 옷을 신의주에서 가져와서 입거든요.

**Q** 그럼 신의주-남신의주-락원은 같은 도시 안에 있으니까 왕래에는 어려움이 없죠?

**A** 어려움 없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신의주 끝나는 무렵에 휴길이 시작되는데 다닐 만은 해요, 신의주-남신의주는 20-30분, 신의주-낙원은 한 시간 20분 즈음 걸려요, 달리 기차도 많아요. 겨울에 트럭 뒤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비닐 뒤집어쓰고 타고 다녀요.

**Q** 신의주 화장품공장이 1949년에 처음 열었고, 나중에 공장이 발전해서 2001년에 남신의주에 확장해서 공장을 또 열었다고 하던데 새로 생긴 공장이 남신의주 지역사회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A** 신의주 화장품공장이 부지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비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또 남쪽에 만든다고 했는데, 거의 돌아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고난의 행군 때라서 전기도 안 오고, 그 공장 돌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건 거의 평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평양으로 가요. 뒤로 몰래 빼돌려서 팔기도 하죠. 그 공장에서 나오는 분홍색 비누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료를 빼돌려서 자기 집에서 그 비누를 만들죠. 근데 집에서 만드니까 아무래도 품질은 떨어지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 신발같이 신의주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짝퉁이 다 나왔어요.

**Q** 그런데 남신의주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노동력은 주로 어떻게 충원하죠?

**A** 북한에는 노동력이 충분히 많아요. 학교 졸업하는 애들 갖다가 쓰면 되죠. 그래도 모자라면 무리 배치라고 하죠. 가까운 도시 의주, 덕현 이런 데서 사람들 뽑아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하게 하죠! 그럼 그 친구들은 신의주 가서 살면서 도시 사람처럼 돼서 오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또래끼리 모여 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Q** 신의주 지도 한번 보실까요?

**A** 신의주역이랑 경무부(헌병)랑 가까워서 신의주역에 안내원 아가씨들은 여기 경무원 남자들이랑 연애를 잘해요. 단동에서 신의주 보면 유독 깊은 밤에도 불빛 있는 데가 여기 경무부잖아요.

**Q** 신의주 백화점은 오래됐나요? 운영은 잘 되나요?

**A** 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전까지



신의주의 주요지점들과 화교, 북송재인교포 집거지 (Google Map,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는 됐죠. 옷도 잘 진열되어있고 잘 돌아갔죠. 근데 이제는 시장을 이용하죠. 백화점에는 판매원이 나와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인형이나 이런 거 가져다 놓고 그냥 있어요.

**Q 신의주에 채하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이 있는데 시장들 규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채하시장은 넘사벽이죠. 한국으로 치면 채하 시장은 남대문, 동대문시장, 나머지 시장은 그냥 동네 시장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남중동, 영전동, 동중동, 동하동 같이 채하시장 가까운 데는 시장이 없고요,, 채하시장이랑 떨어진 데는 거의 동네마다 있어요. 관문동은 북중 관문이라고 해서 관문동, 방직동은 방직공장이 있어서 방직동, 친선동은 북중 친선 얘기하느라 친선동이라고 하고, 동상동은 김일성 동상이 있어서 동상동, 역전동은 역 앞에 있어서 역전동이 됐어요.

**Q 그런데 남한에 의외로 신의주 사람이 안 넘어왔는데 왜 그럴까요?**

**A** 살만해서 한국에 안 오는 거죠. 사실 국경도시고 중국이랑 교류도 많고 한국 가기 쉬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잘 사니까 안 오죠. 신의주가 청진보다 부자고요, 신의주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요.

**Q 그러면 북한에서 생활 형편으로는 제일 넉넉한 도시겠네요.**

**A**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나진, 선봉에 중국 사람들 다니고 매일 장이 서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신의주가 제일 잘 살았죠. 기차역 같은 데 가보면 대합실 기둥에 사람들이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툭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함경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신의주의 주요 공장들(북한에서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Google Map에 정리)

## Q 지금 신의주 사는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A 제 친구가 아들 학비를 보내는데 수수료제하고 한 달에 한국 돈 40만 원 정도 보내요. 그 정도 있으면 대학생 혼자 살 만한가 봐요. 매달 보내지는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모아서 보내는데 코로나 땀에 돈 보내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고생하고 있죠. 돈 보내고 소식 주고받고 하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코로나 때는 좀 연락하기 힘들었죠. 돈 보내는 수수료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가까운 선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 거의 없이 보내기도 하고, 30% 떼이는 때도 있고, 코로나 때는 50% 떼이는 예도 있었어요.

## Q 신의주는 밀무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꿀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꿀뚱품을 밀수하는 사람들을 꿀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다 역사 유물이죠. 옛날 농, 백자, 백동, 엽전 같은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개성 황해도 같이 유물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농이건 뭐건 지고 국경으로 오는 거죠. 도굴한 물건들도 많았을 거구요. 봐서 몇백 불 중국 돈 몇백 원 주면 물건을 다 주고 가요. 그러면 그걸 몇만 불씩 받고 중국 쪽에 파는 거죠.

## Q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만난 북한 분이 중요한 유물을 보내줄 테니 일단 돈을 얼마라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A 그건 한탕주의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랑 그런 물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신의주 사람들 중에 한탕주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Q 신의주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나요?

A 신의주는 완전 마약의 성지예요.



북한사회 내에 마약의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출처: The daily beast

## Q 그러면 처벌 받는 사람도 많나요?

A 돈만 있으면 마약도 하고 단속도 안돼요. 빙두, 아이스,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전에 신의주 백사중학교에서 물품검사 했는데 단속된 마약이 12g 나왔잖아요. 애들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 팔 때 A, B, C등급이 다 있어요. 뭐라 그러면서 파는 줄 알아야? “뇌혈전 걸려도 이거 한번 하면 낫는다.”, “이거 최고 사령부 작전지 휘소에서 지휘할 때 머리 맑아지라고 쓰는 거다”라며 팔기도 해요. 그래서 중독돼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마약은 거의 함흥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함흥에서 와요.

## Q 그러면 마약은 얼마나 퍼졌죠? 주변에 찾아보면 한두 사람씩은 찾을 수 있나요?

A 그 정도 수준이 아니예요. 신의주 사람들을 생활 수준으로 나누면 상위 30%는 거의 노출돼 있어요. 그다음 30%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Q** 그런데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A** 그래서 그때 중독된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마약에 빠져 사는 애들도 있고 이따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의주 있을 때 알던 사람 중에 완전히 빠져 사는 애들은 한국 와서 연락해보면 정말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문제예요.

근데 현장에 보위원이나 안전원이 순찰을 돌다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지도원동지, 보위원동지도 한 코 하시자”고 하면 그러면 보위원도 잡을 놈만 잡고 뇌졸 놈은 다 뇌줘요. 북한에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마약을 코로 흡입하는 거 아세요? 그 마약 빠는 기구를 유리를 녹여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옥할 것도 없는 게, 삶에 낙이 뭐가 있겠어요?

**Q** 밀무역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죠?

**A** 신의주만이 아니라 국경 끼고 있는 연선 도시들은 다 밀무역을 해요. 그냥 시골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압록강에 나가서 구리, 황해도에서 나온다는 희귀금속, 골동품, 엽전들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물물교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모자라니까 파철, 알루미늄 같은 걸 가져가서 쌀, 사과 같은 식량들이랑 바꿔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건 가져오다가 경비대한테 걸리면 다 뺏기니까 언제부터인가 중국 돈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돈 쓰는 게 일상화가 된 거죠. 북한사람들도 이거 얼마나? 하면 10원, 15원 이렇게 중국 돈으로 얘기해요. 한국에서 “밀무역”, “밀수”라고 하면 어감이 엄청 안 좋은데, 거기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언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왔을걸요?

**Q** 신의주에 대해 남한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A** 신의주는 열린 도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거부감 없이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가 신의주예요. 그리고 평안도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중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이랑 어울려 산 경험이 있어요.

(인터뷰 일시 : 2023년 6월 13일)

# 언론에 비친 신의주

최근 6개월간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신의주 소식

## 북,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치약공장, 타일공장, 신의주미래상점 완공



사진: 통일뉴스, 2023. 06. 16

북한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치약공장과 타일공장, 신의주미래상점이 준공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여러 대상건설이 완공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여러 가

지 타일과 위생자기들을 생산하여 농촌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지방건설을 내밀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의의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치약공장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흐름식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고 녹지조성과 도로포장을 진행하여 주변 환경을 일신시켰다.

통신은 준공식이 13일과 14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참고: 통일뉴스, 2023. 06. 16 (<http://www.tongilnews.com>)

## 신의주 10대 청소년 2명 한국영화 시청하다 발각, 구류돼



사진: 주성하TV화면캡처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10대 청소년 2명이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돼 구류장에 감금된 상태로 전해졌다.

데일리 NK는 “지난 3월 말 신의주시에서 남조선(한국) 영화를 시청하던 10대 청소년 2명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에 적발돼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초·고급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씨 형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형제는 현장에서 도 안전국 구류장으로 끌려갔고, 다음날부터 따로 떨어져 조사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데일리NK는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이런 문제는 단속 당시에 현장에서 바로 돈을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벌써 20일 정도가 넘었으니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김 씨 형제는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남조선 영화를 본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참고: Daily NK, 2023. 04. 20

## 압록강 하류에서 활동하는 북한경비정 급감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 하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 경비정의 수가 코로나 이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이전에는 밀수로 거둬들이는 뇌물액이 상당해 경비정을 여러 대 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액수가 현저히 줄어 경비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6월 12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현재 압록강 하류 일대에는 철산군에서 활동하는 해군 12전대(지휘부는 염주군에 위치) 산하 해안경비대 52정대 소속 경비정 1척과 신의주 주둔 국경경비대 소속 경비정 1척 등 2척만 운용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에 5대의 경비정이 있었으나 현재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3대의 경비정은 코로나 이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이 경비정들을 ‘말뚝조’라고 일컫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국경경비대가 작은 배를 이용해 밀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름을 압수하거나 뇌물을 받는 방법으로 경비정 운용 자금을 100% 채울 수 있었지만, 국경이 막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전만큼 뇌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해 경비정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경비라는 공적 업무에 활용되는 경비정의 연료 등 운용비는 엄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나 국가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 보니 해군이나 국경경비대는 배를 이용해 밀수하는 개인들에게서 챙긴 뇌물로 경비정을 운용해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코로나 국경봉쇄로 밀수가 차단돼 단속할 대상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해군과 국경경비대가 부정하게 마련해 오던 자금줄도 끊겼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다만 서해 지역에서 경계근무에 나서고 있는 북한 해군은 중국에 불법으로 어업권을 판매하면서 현재도 일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Daily NK, 2023. 06. 12

## 신의주에 평양 김일성광장 본뜬 광장 조성

북한 국경 도시 신의주에 세워진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본뜬 광장이 공개되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23년 1월 9일 보도를 통해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평안북도 쫄기대회’ 소식을 전하며 김일성 광장과 똑같이 만든 대회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녹색 지붕에 건물 중앙에 김일성-김정일 사진과, 건물 좌우에 시계까지 김일성 광장을 그대로 복사한 듯 보인다.

북한은 미림비행장에 김일성 광장을 복제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대규모 열병식 행진과 차량 연습을 하는데 이곳에도 실제 건물이나 선전 장식은 없다.

이와 관련 NK뉴스는 신의주에 이 같은 광장을 만든 것은 대규모 집회와 군사 퍼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K뉴스는 대인민학습원의 복제품, 김일성 광장과 동일한 독특한 선전 표지판, 관리들을 위한 유사한 화려한 대리석과 금색 전망대가 특징이지만 신의주 광장은 평양보다 작고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

시사주간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김일성 광장을 본뜬 신의주 광장에서 소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려는 것 같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신의주 광장에 중국인 관광객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선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필수”라며 “북한이 국경 개방과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 행사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고: NK뉴스 2023. 01. 11. 시사주간, 2023. 01. 12



사진: (위) 평양 김일성광장, (아래) 김일성광장을 본뜬 신의주 광장에서 열린 쫄기대회

## 북 '야간조명' 분석 결과 신의주·평양 경제 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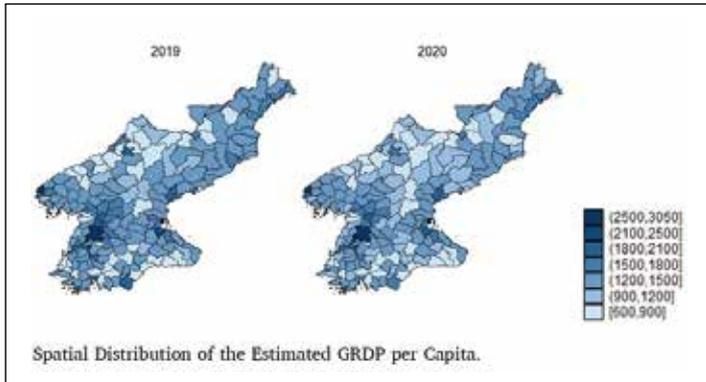


사진: 아시아&글로벌 이코노미

미 항공우주국(NASA) 위성으로 북한 야간조명을 분석한 결과,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의 경제력이 평양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우주에서 바라본 북한의 야간조명 9년치를 분석해 지역별 경제를 파악한 연구결과 (Assessing regional economy in

North Korea using nighttime light)가 '아시아&글로벌 이코노미(Asia and the Global Economy)'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해양대기청(NOAA)이 운영하는 'VIIRS(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역내총생산인 GRDP를 추정했다. GRDP는 일정기간 특정 경제구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이다.

분석결과, 2012~2020년 1인당 평균 GRDP가 가장 높은 북한 내 지역은 평양시로, 연간 2894달러로 나타났다. 중국과 접경지역인 신의주는 2678달러. 평양과 216달러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위성사진 분석에서 드러난 신의주의 잠재력에 대해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무역 거점으로,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의주의 추정 인구가 평양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를 극복하려면, 신의주에 노동인구가 더욱 유입돼야 하는데, 북한은 인구가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참고: rfa, 2022. 11. 22,

## 단동에 몰린 관광객, 이유는 북한구경

지난 4월 말 북한 신의주를 볼 수 있는 중국 단동의 압록강 단교(斷橋) 인근은 중국 국내 관광객으로 인산인해였다. 54인승 관광 버스가 5~10분마다 한 대씩 왔고, 강 위의 유람선 4척엔 승객 수백 명이 탑승했다. 한복 대여소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결제했고, 사진사들은 인파 사이를 뛰어다니며 셔터를 눌렀다.

북·중 국경이 올해 다시 열려 중국 관광객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면, 북한은 연간 최소 5000만달러(약 670억원) 외화 수입을 얻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 이전 북한을 찾은 중국인은 매년 약 20만명으로, 북한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90%를 차지했다. 현재 단동에서 유람선 탑승을 포함한 1일 북한 테마 관광 비용은 300위안(약 5만8000원)부터다.

단동의 여행사 직원 가오씨는 “북한 출입이 원래 자유로웠던 중국인들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북한 관광에 갈증을 느낀 것 같다”면서 “지금은 유람선 타고 압록강 북·중 경계까지만 갈 수 있는데도 관광 문의가 빗발친다”고 했다. 더우인(중국어판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6월 개성~평양~판문점 관광 예약’ 포스터를 내걸고 예약금을 가로채는 ‘관광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장성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 장모(60)씨는 “북한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면서 “중국의 1970~80년대를 북한에서 보는 ‘과거 여행’을 위해 북한에 가고자 한다”고 했다. 단동의 압록강 단교 인근 대로변의 북한 전문 관광 업체와 북한 기념품점 20여 곳은 올해 들어 새 간판을 걸었다. 북한 식당과 기념품 가게 대부분의 문 앞에는 ‘직원 구함’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기념품 가게 직원은 “올해 초에는 가게 안이 텅 비었는데, 이젠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이 호객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단동 소식통은 “하반기에 북한 신의주 관광이 먼저 재개되고, 이후 평양 관광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곧 중국에서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북한의 큰 돈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고: 조선일보 04. 24

## 평북 교원대학 신축과 함께 잔디운동장 건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신설된 교원대학 신축과 잔디구장 건설에 대한 뉴스가 있었다.

북한에는 각 도마다 소학교·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평안북도에도 1947년 건설된 교원대학이 신의주 평화동에 있었지만 건물이 낡아 최근 다시 신의주 본부동에 교원대학을 건설했다.

6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도 예술단 앞에 있던 낡은 4층짜리 (신의주)교원대학이 7층짜리 본관과 기숙사, 체육관 등을 갖춘 대학 건물로 이전했다”고 전하며 “대학 운동장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잔디를 심었다”며 “수입 잔디로 조성된 운동장은 보기에 좋지만 잔디 물주기에 매일 동원되는 대학생들은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2023. 06. 21

## 신의주신발공장 기능성 신제품 개발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등이 보장된 새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 대외용 매체인 '내나라'는 2일 "지난 시기 도안으로부터 형질설계, 편직물조직 및 형태설계, 편직신발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에 의한 일체화를 실현했다"고 전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 편직물설계프로그램과 CNC편직기 사이의 완전한 호환을 실현해 다양한 편직신발을 임의의 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제작방법을 새롭게 확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편직물의 열처리방법과 편직물 제화공정을 갖춰 임의의 형태, 품종의 편직신발도 계열생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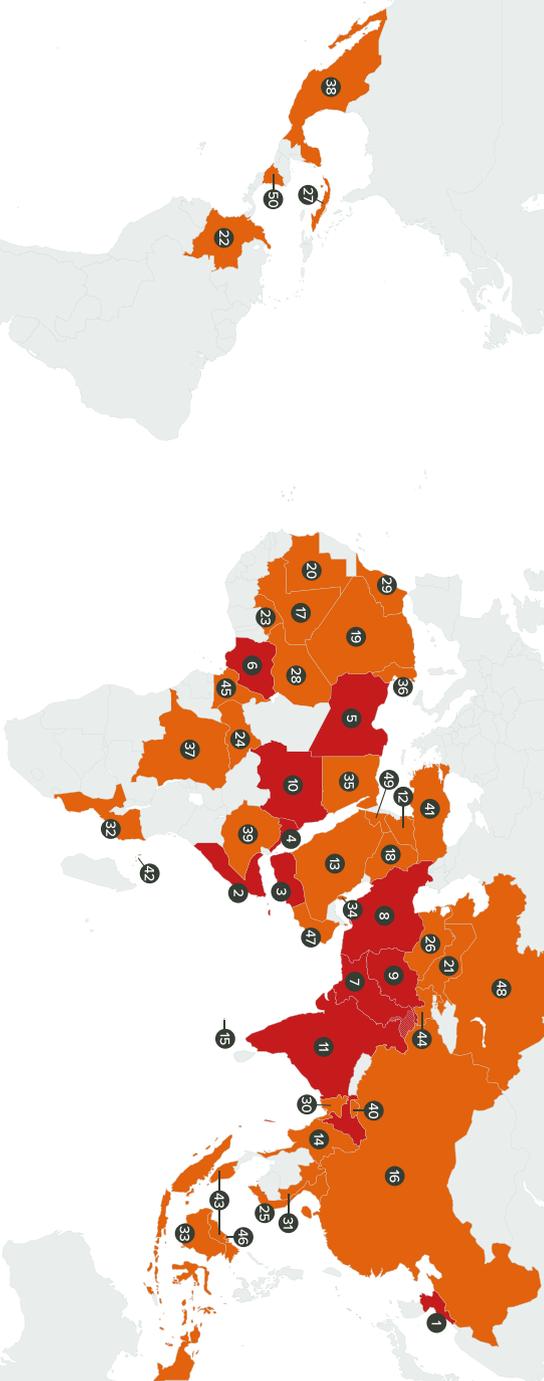
얼마 전에 진행된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3'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가볍고 맵시 있는 10여종의 질 좋은 신발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참고: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 WORLD WATCH LIST 2023

##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지도



### ABOUT THE LIST

#### 월드와치리스트에 관하여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설문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 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인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ank	Country	Score
1	북한	98
2	소말리아	92
3	에멘	89
4	에리트레아	89
5	리비아	88
6	나이지리아	88
7	파키스탄	86
8	이란	86
9	아프가니스탄	84
10	수단	83
11	인도	82
12	시리아	80
13	사우디아라비아	80
14	미얀마	80
15	몰디브	80
16	중국	77
17	말리	77
18	이라크	76
19	알제리	73
20	모리타니	72
21	우즈베키스탄	71
22	콜롬비아	71
23	부르키나파소	71
24	중양이모리공화국	70
25	베트남	70
26	투르크메니스탄	70
27	쿠바	70
28	나제르	70
29	모로코	69
30	방글라데시	69
31	라오스	68
32	모잠비크	68
33	인도네시아	68
34	카타르	68
35	아랍트	68
36	튀니지	67
37	몽고민주공화국	67
38	멕시코	67
39	에티오피아	66
40	부탄	66
41	터키	66
42	코모로	66
43	말레이시아	66
44	타지키스탄	66
45	카메룬	65
46	브루나이	65
47	오만	65
48	카자흐스탄	65
49	요르단	65
50	니카라과	65